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사례연구 보고서

2021년 6월



제 출 문

(재)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사례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6월

책임연구원 : 박경태(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재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유해정(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연구기간: 2020년 6월~2021년 6월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재)다음세대재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장

1. 연구개요 / 1
2. 연구대상 / 4
3. 분석틀 / 16

II. 인권운동 현황 및 지원기관 분석

1. 인권운동의 역사를 보는 관점 / 28
2. 한국 인권운동의 뿌리 / 30
3.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공진화 / 34
4. 민주화 이후 인권운동의 활성화와 굴곡 / 39
5. 동향: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 44
6. 인권운동 지원기관·사업 / 49

III. 지원사업 사례분석

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개요 / 57
2.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조사결과 / 59
3. 지원사업 추진결과 / 74

IV. 성과평가와 의미부여

1. 평가지표1 ‘추진’ / 95
2. 평가지표2 ‘영향’ / 99
3. 평가지표3 ‘성장’ / 103
4. 평가지표4 ‘활성화’ / 109
5. 평가지표5 ‘지원’ / 115

V. 제언

1. 지원사업의 향상을 위한 제언 / 124
2. 향후 평가틀의 활용과 개선에 관한 제언 / 125

참고문헌 / 129

표목차

- <표 I-1> 연구 추진 일정 / 3
- <표 I-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대상 / 5
- <표 I-3>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대상 / 6
- <표 I-4> 국제사회적영향투자네트워크 IRIS+의 평가요소 / 17
- <표 I-5> 사회적영향연구센터 사회적 영향 지표의 평가요소 / 18
- <표 I-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지원사업 평가 이슈 / 19
- <표 I-7> 행정안전부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 / 20
- <표 I-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성과 평가틀 / 20
- <표 I-9> 인권기반접근 평가틀 / 21
- <표 I-10> 평가틀의 경향적 구분 / 23
- <표 I-11> 평가틀의 영역과 요소 / 27

- <표 II-1> 인권운동 지원기관 / 49

- <표 III-1> 사례연구 대상 사업 기관 현황 / 57
- <표 III-2> 심층면접 진행 / 58
- <표 III-3> 심층면접 질문 범주와 내용 / 59
- <표 III-4> 찾아가는 인권버스(지구인의 정류장) 세부사업 결과 / 74
- <표 III-5> 인권운동 아카이브(인권연구소 '창') 세부사업 결과 / 77
- <표 III-6> 프로젝트 리셋: 올바른 디지털 생태계 구축(Project ReSET) / 79
- <표 III-7>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세부사업 결과 / 82
- <표 III-8> 평화는 모두의 권리-첨단기술과 평화권 어드보카시((사)피스모모) 세부사업 결과 / 84
- <표 III-9> 자긍심 넘치는 우아한 농인성소수자 되기-한국 농인 성소수자 인권운동 첫걸음(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 세부사업 결과 / 88

<표 III-10>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아카이브사업(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세부사업 결과 / 91

<표 IV-1> 성과분석과 의미부여 결과 종합 / 121

그림목차

[그림 I-1] 유니세프 애드보커시 평가틀 / 18

[그림 I-2] 평가의 맥락과 영역 / 25

I. 서장

1. 연구개요

1) 기본사항

가. 연구명: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사례연구

나. 연구기간: 2020년 6월~2021년 6월

다. 발주기관: 다음세대재단

라. 연구진

- 책임연구원: 박경태(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김재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유해정(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2) 연구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 다음세대재단은 오픈소사이어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21개 국내 인권단체들이 선정함
- 국내 인권운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선정 단체들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원대상 중 7개 단체를 선정해 해당 활동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 이를 통해 선정된 단체 활동들의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고 향후 인권단체 지원 방향을 위한 논의 토대를 구축함

나. 연구목적

- 지원사업 대상 활동의 성과평가를 통한 의미와 동향 파악
- 지원단체가 활동을 자가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 제안
- 향후 인권단체 및 활동 지원사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3) 연구방법과 내용

가. 한국 인권운동 현황 파악

- 연구방법: 문헌조사
- 연구내용
 - 한국 인권운동의 흐름과 동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논의, 기록물 등 검토
 - 배경지식으로서 한국 근현대사의 과정에 조응하는 인권운동의 형성과 전개, 한국 인권운동 흐름의 의미와 최근 동향에 관한 이해

나. 인권운동 지원 기관·사업

- 연구방법: 문헌조사
- 연구내용
 - 지원대상의 재정현황 분석 및 주요 재정지원기관 분석
 - 인권운동에 대한 지원 기관 및 지원사업 현황 검토

다. 지원사례 기본내용 분석

- 연구방법: 문헌조사
- 연구내용
 - 지원사례 활동들의 계획, 실행, 결과에 관한 기본문서 검토
 - 지원사례 활동의 계획, 실행, 결과에 관한 현황과 평가를 위한 분석

라. 지원사례 분석틀 구성

- 연구방법: 문헌조사, 연구진 워크숍
- 연구내용
 - 인권운동 및 지원사업 관련 분석틀 기존사례 검토
 -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지원사례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요소와 체계도출

마. 현장 평가의견 조사

- 연구방법: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 연구내용
 - 7개 지원대상 활동현장 방문에 기반한 담당자와 참여자 면접조사
 - 활동과정과 결과에 관한 평가와 의미부여를 위한 조사결과 분석

바. 성과평가와 의미부여

- 연구방법: 연구진 워크숍
- 연구내용

- 수합된 활동과정과 결과 관련 자료 분석, 전체 지원사업의 성과 종합
- 평가와 의미부여를 위한 토론,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제언

사. 연구과정 공유와 의견수렴

- 연구방법: 보고회
- 연구내용

- 발주기관과 연구진 간 공동 보고회를 통한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표 I -1> 연구 추진 일정

과업	년 월	2020						2021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연구추진 협의		■												
연구실행계획수립		■												
연구계약체결				■										
연구회의 (연구점검/워크숍)				■					■	■				■
문헌조사 (평가틀 사례)			■	■										
연구회의 (평가틀 개발)				■										
문헌조사 (인권운동사)					■	■	■	■						
사업주체심층면접						■	■	■	■				■	
연구회의 (연구과정 점검)								■						
심층면접결과분석									■	■	■			
문헌조사 (지원사업사례)									■	■	■			
중간보고회											■			
지원사업 결과분석													■	■
성과분석/의미부여														■
최종보고회														■

2. 연구대상

1) 지원대상 개요

가.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인권운동 및 인권활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지원분야
 - 일반분야: 인권관련 현장활동, 활동가 지원, 현안 대응 활동, 연구, 대중 인식개선, 아카이빙, 예술활동, 언론활동 등
 - 특별분야: 젠더, LGBT, 이주·난민과 관련된 인권 이슈를 다루는 사업, 기업 활동과 새로운 기술 발전 등에 관련된 인권 이슈를 다루는 사업
- 지원내용
 - 사업비: 3,000만원 내외 규모
 - 행정지원: 조직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및 홍보지원
- 활동기간: 2020년 6월~2021년 5월(총 11개월)¹⁾

나. 지원대상 활동

- 선정과정
 - 선정기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구체성, 확장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단체의 전문성 등
 - 서류심사를 통해 26개,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21개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 활동주체: 총21개 지원대상 중 단체 단독활동은 17개, 연대활동은 4개
 - 활동분야: LGBTQ(성소수자)(5개), 젠더/여성(5개), 이주·난민(4개), 인권활동 지원(2개), 청소년(2개), 장애(1개), 평화(1개), 플랫폼 노동(1개)

1) 애초 활동기간 11개월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개월 연장한 12개월로 변경됨.

<표 1-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주체	사업명	지역	분야
지구인의 정류장	단독	찾아가는 인권버스	안산 전국	이주난민
인권연구소 창	단독	인권운동 아카이브	서울	인권활동 지원
Project ReSET	단독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국	젠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단독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서울	젠더
사단법인 피스모모	단독	평화는 모두의 권리 - 첨단기술과 평화권 어드보카시	전국 국제	평화
한국농인LGBT, 서울인권영화제	연대	자긍심 넘치는 우아한 농인성소수자 되기 - 한국 농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 첫걸음	전국	LGBTQ
사회적협동조합사람 마음	단독	평등한 회복력 나눔 READY(Resilience Equality And Disability): 신체·정신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 개발	서울 서울 외 지역	장애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대	홍리스 청(소)년과 현장 활동가가 함께 외치는 주거 정책 제안 "집다운 집을 내나라!"	전국	청소년
인권교육센터 들	단독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 청소년 시민의 주체 형성 과정과 전국 청소년인권운동의 활동과제	전국 서울	청소년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대리운전협동조합	연대	플랫폼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 보호사업	전국	플랫폼 노동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명동, 성공회용산나눔의집,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연대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전국	LGBTQ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단독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아카이브사업	부산	젠더
이주와 인권연구소	단독	바다에서 밥상까지 인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공급과정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프로젝트	전국	이주난민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단독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의 목소리로 젠더 폭력의 현장을 말하다	서울 서울 외 6개 권역	이주난민
호모인테르	단독	난민통역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역활동가와 NGO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모	전국	이주난민

		둘개발 및 통역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인권활동을 돕는 상담자 모임 '뜻밖의 상담소'	단독	지속가능한 인권활동을 위한 마음건강 돌봄 프로젝트	서울	인권활동 지원
불꽃페미액션	단독	혐오에 맞서는 여자들	서울 전국	젠더
전북여성문화예술인 연대	단독	전북의 여성예술인, 드디어 소통과 연대의 장을 열다	서울 외 지역	젠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단독	키썬에이즈샬롱 시즌4 - 전국투어	서울 수도권	LGBTQ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단독	무지개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전국	LGBTQ
한국다양성연구소	단독	모두를 위한 화장실 캠페인	전국 인천	LGBTQ

다. 연구대상 활동

- 발주기관과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7개 연구대상 활동 선정
- 연구대상 활동은 지원대상 활동의 다양한 분야와 지역, 연구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

<표 1-3>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사업명	주요내용
지구인의 정류장	찾아가는 인권버스	농촌지역 여성이주노동자의 취업지역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인권교육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 아카이브	범 인권운동을 포괄하는 인권기록 활동 '인권아카이브'
Project ReSET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는 활동가 양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 구축,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젠더담론 컨퍼런스 개최, 여성주의 및 퀴어 인권운동단체들과의 연속 간담회 개최, 해외 트랜스젠더 포용단체 인터뷰 및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사단법인 피스모모	평화는 모두의 권리 - 첨단기술과 평화권 어드보카시	기술, 인공지능, 무기, 인권에 대한 연구/토론회, 활동가 공유워크숍 진행. 자료 아카이브 및 관련 콘텐츠 생산
한국농인LGBT, 서울인권영화제	자긍심 넘치는 우아한 농인성소수자 되기 - 한국 농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 첫걸음	농인성소수자 당사자를 중심으로 대안적 성소수자 관련 한국수어 개발 및 보급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아카이브사업	네트워크, 외부자문, 아카이브 강좌, 출판, 전시 등

2) 지원대상 기관·단체

가. 지구인의 정류장

- 형태/설립년도: 비영리민간단체 / 2005년
- 분야: 이주, 난민
- 설립목적
 - 이주의 역사를 영상데이터로 축적
 - 소수자·이주자·당사자들이 참여하며, 소통하고,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자조적인 문화 활동 사랑방을 형성함
- 주요활동
 -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 사업, 남/여 노동자 쉼터 운영(2013~)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캠페인 진행(2015)
 - 안산지구인마을방송 안산마을만들기지원사업 운영(2017)
 - ‘투투버스’: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현장 투어(2018)
 - 인권재단 사람 지정인권사업 <인권프로젝트-업(UP)>: 이주노동자 건강권 지원사업 운영(2019)

나. 인권연구소 ‘창’

- 형태/설립년도: 미등록단체(고유번호증) / 2000년
- 분야: 인권활동지원
- 설립목적
 - 인권연구 및 인권운동 기록
 - 인권활동가 교육 및 역량강화
 - 첨예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 이론과 전략 모색
- 주요활동
 - 인권 연구 및 인권교재 발간
 -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및 세미나
 - 시민인권교육
 - 인권관련 자문(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 권리 증진 소위원회 등)

다. Project ReSET

- 형태/설립년도: 임의단체 / 2019년
- 분야: 젠더
- 설립목적
 - 텔레그램 성착취 연속보도를 접하고 문제의식을 느낀 개인이 설립한 모임
 - 24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증거 채증과 피해자 대응, 경찰과의 공조수사 활동 중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 및 정책 연구, 유관기관에 대한 브리핑, 보고서 전달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여성 안전에 기여
- 주요활동
 - 범죄 채널 실시간 모니터링(24시간 온라인 대응)
 - 피해사실 채증과 피해자 안내·상담
 - 가해채널·서버 DB구축을 통한 경찰과의 공조수사
 - 성착취 채널을 발굴하여 신고 프로젝트(#트위터_신고좌표)
 - 성착취 채널 관련 이슈 파이팅
 -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입법, 정책 연구

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 형태/설립년도: 미등록단체 / 2015년
- 분야: 젠더
- 설립목적
 - 트랜스젠더로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
 - 젠더와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페미니즘적 활동 추구
 - 트랜스젠더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플랫폼 추구
- 주요활동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정기 진행(매월 1회, 연 10회)
 -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정정 절차 설명회
 - 비정기 트랜스젠더 이슈 문집 “조각보자기” 발간
 - 트랜스젠더 추모의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 추모회 및 촛불문화제

- 젠더담론 컨퍼런스
- 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지지자 인터뷰

마. (사)피스모모

- 형태/설립년도: 사단법인 / 2012년
- 분야: 평화
- 설립목적
 - 수평적인 서로 배움을 통한 평화교육으로 실천적 사유의 시민공동체 형성
- 주요활동
 - 평화교육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출판: 자체 연구개발한 ‘P.E.A.C.E.페다고지’를 토대로, 이론편 및 가이드북 출판
 - 평화교육 진행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수립: 교사/교육활동가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진행자 되기 프로세스 운영
 -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평화감수성에 기초한 글로컬시민교육,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평화/교육, 젠더감수성과 평화역량 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배움 주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평화교육 플랫폼(Platform) 구축: 아시아교육연대체 활동, 아시아 평화교육 컨퍼런스 운영, 국내외 평화교육 현황 및 동향 파악
 -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 및 캠페인 진행: 세월호 액션키트&응답하라 교육부 캠페인, 방위산업전시회(ADEX) 반대 캠페인 등

바. 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

- 형태/설립년도(대표단체 한국농인LGBT): 단체설립 준비 중 / 2019년
- 분야: LGBTQ
- 설립목적
 - 한국농인LGBT는 한국사회에서 언어소수자인 농인이자 성소수자라는 이중소수자 당사자가 만든 단체
 - 농사회 내의 LGBT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배포하여 자긍심을 기반으로 한 성소수자 정체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활동 추구

- 주요활동
 - 농인성소수자 인식개선 운동
 - 한국수어 혐오표현 바로잡기 캠페인

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 형태/설립년도: 임의단체 / 2017년
- 분야: 젠더
- 설립목적
 - 지역문화예술계를 전담하는 예방센터의 상시운영을 촉구하고 성폭력피해자라는 이유로 생존권과 예술작업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기 위해 설립
 - 법과 정책, 제도의 사각지대로부터 예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책을 요구하며, 안전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 공동체가 실현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활동
 - ‘문화예술계 성폭력 OUT!’ 행동 <락페미-터치하다가 터지는 수가 있다> 캠페인
 - <시각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페미니즘> 강연 기획 및 주최
 - 대학 내 성폭력문화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행동 <그건 성폭력입니다> 주최
 -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대응센터> 4개월 운영
 - 지역 문화예술계 metoo, 제도개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예술계 ‘미투’ 이후를 살아가는 말들’ 집담회 개최
 - 수잔나 딜버 국제초청포럼 예술계 미투 이후, 연대의 힘 개최
 - 예술계에서 여성창작자로 살아남는 생존의 전략 강연 개최
 - <문화예술이 젠더를 말하다> 시즌3 캠페인참여
 - 부산문화예술계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한 <예술계_내_행동강령 워크숍>
 -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확산을 위한 포럼 <우리는 달라졌고 이제는 바꾼다>
 - 문화예술인들의 위드유 프로젝트 <기록하는 목소리> 전시공연

3) 지원대상 활동2)

가. 찾아가는 인권버스(지구인의 정류장)

○ 활동목적

- 농업 여성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강화

○ 활동목표

- 농업 여성 이주노동자가 많이 살아가는 주요 거점을 방문하여 상담 부스를 열고, 노동권/인권/성평등권 교육
- 농업노동자의 항구적 온라인 노동인권 콘텐츠 플랫폼 형성의 토대 마련

○ 활동내용

- 찾아가는 인권버스

법률지원: 노동관련 법률상담, 젠더폭력 피해대응

의료지원: 긴급진료지원, 여성건강권 교육

모국어 도서부스를 통한 주체적 독서 장려: 모국어 도서 소개, 독서상담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 관계 형성을 통한 지지관계망 형성

- 찾아가는 인권사진관

노동자 인터뷰·촬영: 이주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 그래프 작업, 사진촬영

전시회: 전시를 통한 이주노동 인식제고, 이주여성노동자 임파워먼트 향상

- 찾아가는 인권살롱

모국어 미디어 제작: 주체적인 정보생산 및 전달

SNS를 통한 미디어 공유: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활동 아카이빙: 생산된 문화콘텐츠 축적 및 공유

나. 인권운동 아카이브(인권연구소 ‘창’)

○ 활동목적

-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이들의 인권운동 기록
- 인권운동 연대의 기록
- 인권기록의 범사회적 공유
-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2) 지원대상 단체들이 지원사업 공모지원시 제시한 활동계획 기준임.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본 연구보고서의 활동결과 분석 부분에서 다룸.

○ 활동목표

- 2001년~2017년 인권운동 기록 정리 및 등록: 그간 수집한 2001년~2017년 기록 4,616건, 용산참사 관련 기록 430건, 주요 노동인권이슈 관련 기록 120건, 음성 기록 27건에 대한 정리 및 등록
- 1990년대 인권운동 기록 보존 활동: 전자파일로 변경한 1990년대 기록 637건에 대한 제목 및 간략 정보 목록화, 실물기록물에 대한 보존 작업

○ 활동내용

- 수집기록에 대한 정리
- 기록관리시스템 '인권아카이브' 등록
- 실물기록에 대한 보존
- 기록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 '인권아카이브' 기록관리 간담회
- 인권활동가 기록관리 워크숍

다. 프로젝트 리셋: 올바른 디지털 생태계 구축(Project ReSET)

○ 활동목적

- 국가, 시민, ReSET을 주축으로 한 민간단체가 디지털 생태계를 상호 정화하고 견제하는 시스템 구축

○ 활동목표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목표 하에 디지털 생태계를 정화, 견제하는 시스템 구축

○ 활동내용

- 디지털 성범죄 24시 모니터링 팀 운영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집 발간
-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라.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 활동목적

-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로 살아간다는 것, 또 트랜스젠더의 주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고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정

체성과 당사자의 삶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트랜스젠더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개인을 포용 (affirming)하고 그의 목소리를 확대시켜 파장을 더욱더 크게 하고자 함

○ 활동목표

- 젠더 포용(gender affirmative) 캠페인의 진행, 젠더담론의 구성, 해외 자료와 단체와의 인터뷰

○ 활동내용

- 젠더담론 컨퍼런스 개최
- 여성주의 인권운동단체 및 퀴어인권운동단체와의 연속 트랜스인권 간담회 개최
- 해외 트랜스젠더 포용 단체 인터뷰와 자료 번역 및 배포

마. 평화는 모두의 권리 - 첨단기술과 평화권 어드보카시((사)피스모모)

○ 활동목적

- 첨단 기술의 무기화(weaponization) 및 사용에 대한 공론화 및 시민적, 법적, 윤리적 규범 형성

○ 활동목표

- 인공지능 및 관련 첨단기술의 무기화에 대한 기본 자료 생산
- 인공지능 및 관련 첨단기술의 무기화에 대한 관심그룹 형성: 시민그룹과 전문가 및 국제기구 영역에서
- 인공지능 및 관련 첨단기술의 무기화와 관련한 국내외 공론장 형성 및 참여

○ 활동내용

- “기술과 인권”, “무기와 인권”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 “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계 연구를 통한 담론 생성 및 보고서 작성
- “기술, 무기체계, 인권”에 대한 분야 간 토론회(학계, 기술, 사법, 인권, 평화 분야 등) 진행
- “기술, 무기체계, 인권” 관련 국내 인권/평화 분야 활동가 공유워크숍
- “기술, 무기체계, 인권”과 관련 국제 토론회 참여 및 발제
- “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구와 관련한 자료들의 아카이브 운영, 사업 진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및 출판, 관련 미디어 자료 생산

바. 자긍심 넘치는 우아한 농인성소수자 되기 - 한국 농인 성소수자 인권운동 첫걸음(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

○ 활동목적

- 농인성소수자가 성소수자 관련 수어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농인성소수자의 인권감수성을 확장하며 자긍심 넘치는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화를 도움

○ 활동목표

- 이중벽장에서 나와 함께하기 - 한국농인LGBT인권운동단체 조직 및 설립
- 한국수어에서 보이는 성소수자 관련 어휘 바로잡기 및 존재하지 않는 어휘 개발하기

○ 활동내용

- 농인성소수자의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을 높여 농인성소수자운동 및 단체 조직의 기틀 닦기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세미나1(정기모임)

일본 농(Deaf)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초청 강연, 한국 농인LGBT 간담회 개최
귀어문화축제 및 인권단체 행사부스 참가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제작한 귀어영화 상영회

한국농인LGBT 인권단체 당사자 회원조직

- 한국수어 성소수자 어휘 개발 및 캠페인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세미나2(정기모임)

한국수어/수어의 이해 및 단어형성의 13가지 원칙 논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소수자 관련 한국수어 어휘 바로잡기

현재 한국수어에 존재하지 않는 성소수자 관련 어휘 찾기

한국수어 어휘 개발 평가단 모집 및 구성

성소수자 관련 어휘 소개 책자 및 한국수어영상 제작

성소수자 관련 올바른 한국수어 표현 보급

캠페인 웹페이지 제작

한국수어 개발어휘 평가 워크숍(서울·충남)

사.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아카이브사업(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 활동목적

- 지역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이끌어 낸 피해자, 활동가, 청년, 시민들이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기억하고 재해석하는 주체가 되는 자리 마련
- 지역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과정과 성과를 아카이브하여 기록되기 어려운 지역인권운동을 어떤 방법과 형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지역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역사를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환경 조성
- 지역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기록을 통해서, 이후 자발적 운동의 주체가 되는 다음세대들에게 선례가 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거점 마련

○ 활동목표

-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자문회의,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인권운동에 관한 아카이브강좌 개최, 지역인권운동의 재의미화 과정 제시
- 흩어져있는 지역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자료를 분류, 분석하여 아카이브의 기본단계 구축
- 아카이브를 기초로 운동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텍스트로 기록, 이미지를 수집하여 각각 출판과 전시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공유, 의미 확산

○ 활동내용

- 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예술인, 활동가, 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아카이브 작업의 의미공유 및 확산을 위한 간담회
지역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아카이브 사업(강좌)
인권운동 아카이브의 사례공유
문화예술을 통한 인권운동 아카이브 방식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 아카이브를 위한 대안모색
- 아카이브 사업(출판)
 - 지역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고발 글 묶음
 - 지역문화예술계 성폭력운동의 역사 아카이브 맵
 - 지역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매뉴얼 키트
- 성과공유
 - 지역문화예술계 운동아카이브 이미지·텍스트·영상 전시
 - 전시를 통해서 인권운동아카이브 사회적 역할 메시지 전달

3. 분석틀

1) 예비적 검토

가. 개요

- 시민사회 운동주체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의 성과나 가치 파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절대적인 기준과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활동을 명확하고 정형화된 명확한 개념적·계량적 포착이 곤란하다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함
- 아울러 정부나 기업의 정책과 사업의 평가에 비해 시민사회 영역 주체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관련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음
- 시민사회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분석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출된 분석틀은 저마다 다른 관점과 방식을 지니고 있음

나. 사회적 영향보고와 투자기준(IRIS+)³⁾

- 사회적 영향보고와 투자기준(Impact Report & Investment Standards)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해 사회적 경제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3) 사회적 영향보고와 투자기준 홈페이지(<https://iris.thegiin.org>).

- 2008년 록펠러 재단, 어큐먼 펀드, B랩이 창안해 현재 국제사회적영향투자네트워킹(Global Impact Investment Network)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판본이 'IRIS+'임. 이를 통해 각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해당 영역의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IRIS+는 축적된 방대한 평가관련 자료(data)를 평가요소별로 제시해 사회적 기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적 영향 평가는 다음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됨

<표 I -4> 국제사회적영향투자네트워킹 IRIS+의 평가요소

요소	개념과 관련 자료
무엇을 (What)	- 기여하는 성과 및 성과가 얼마나 중요한가 - 기간별 성과수준, 성과의 한계, SDG, 이해관계자에 대한 성과의 중요성
누가 (Who)	- 누가 그 효과를 경험하고 성과와 관련하여 얼마나 부족한가? - 이해 관계자 유형, 지리적 경계, 성과의 기본수준, 이해관계자의 특성
얼마나 많이 (How Much)	-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향이 발생하는가? - 규모: 결과를 경험 한 사람들의 수(사회적 성과) - 깊이: 이해관계자가 경험 한 변화의 정도 - 기간: 이해관계자가 결과를 경험하는 기간
기여 (투자자)	- 그 효과는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비교되고 기여합니까? - 정도: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정도를 고려한 성과의 깊이에 대한 기여도 - 기간: 성과가 지속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한 성과 기관에 대한 기여도
위험	- 어떤 위험 요소가 중요하며 성과가 의도했던 것과 다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일반적으로 10가지 위험요소 중 하나를 사용해 설명되는 위험유형: 증거 위험, 외부위험, 실행위험, 이해관계자 참여위험, 이탈위험, 예상치 못한 영향위험, 효율성 위험, 기여위험, 정렬위험 및 내구성 위험

다. 사회적 영향 지표(SII)⁴⁾

- 비영리 부문 컨설팅 및 연구 그룹인 사회적영향연구센터(Impact Research Center)의 사회적 영향 지표(Social Impact Index)는 사회개발 프로그램 평가도구임
- 평가를 통해 자선 투자자들이 기부금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투자를 차별화하며 새로운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5가지 요소로 구성됨

4) 사회적영향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impactresearch.center>).

<표 1-5> 사회적영향연구센터 사회적 영향 지표의 평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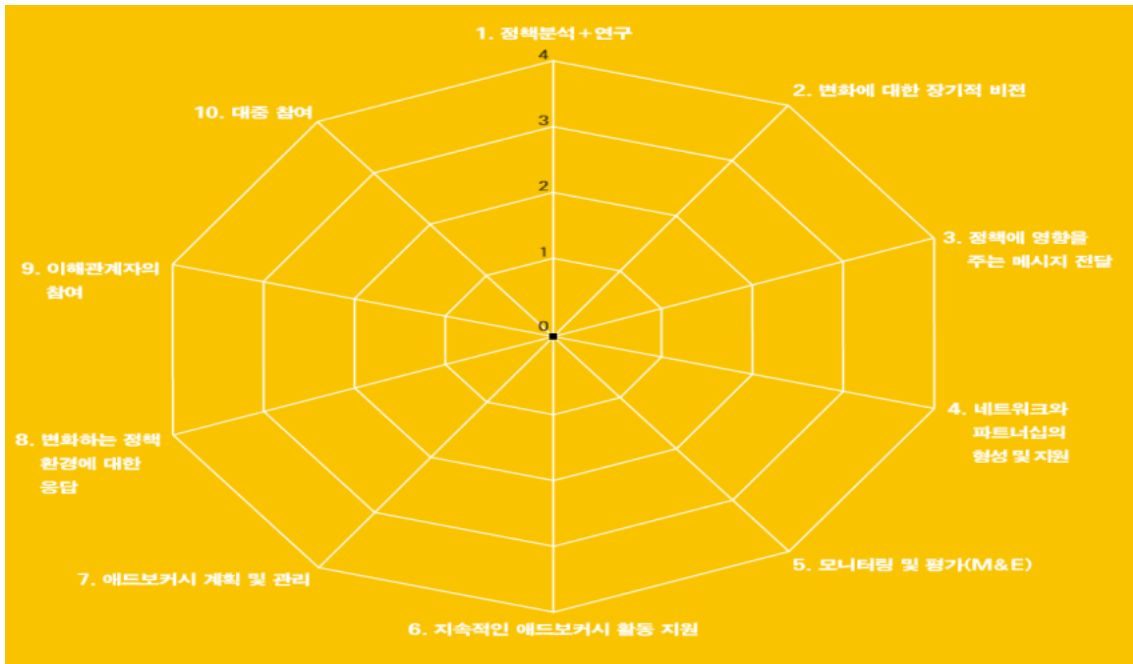
요소	내용
영향의 폭(Breadth of Impact)	-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수
변화하는 패러다임 (Changing Paradigms)	- 프로젝트가 사고방식과 행동 변화를 장려하는 정도
안녕(Wellbeing)	-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는 정도
권능부여(Empowerment)	- 개인 또는 커뮤니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도
프로젝트 실행 (Quality of Project Implementation)	-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실행됐는가

라. 유니세프 애드보커시 평가틀⁵⁾

- 국제사회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활동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의도적인 과정임
- 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효과적이고 파급력 있는 애드보커시를 점검하기 위해 목표, 활동, 성과 등 3단계 시점에 걸쳐 10가지 측면의 평가요소로 구성된 평가틀을 제시함

[그림 1-1] 유니세프 애드보커시 평가틀

5) 한국인권재단, 2015



마. 개발지원사업 평가의 이슈(OECD DAC 199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인 개발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평가의 요소에 해당하는 이슈와 이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적인 질문들을 제시함
- 평가들은 타당성, 효과성, 영향과 효과, 전반적 결과, 지속가능성, 대안, 시사점 등 7가지 이슈와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됨

<표 I -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지원사업 평가 이슈

이슈	질문
타당성(Ration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의미가 있는가? - 목표가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대안적 목표를 고려해야 하는가?
효과성 (Objectives Achie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 되었는가? - 아니면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 목표의 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영향과 효과 (Impacts and Eff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 했는가? (※ 직접적인 산출물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은 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환경 등 개발 지표에 대한 기본적 영향 포함)
전반적 결과 (The Overall Resu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은 얼마나 성공적 이었는가? 왜 그런가? - 영향과 효과가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목표가 시간과 예산 내에서 달성되었는가? - 큰 결점이 있었는가? - 주요한 성취가 있었는가?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 성과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대안(Alternatives)	- 결과를 달성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시사점 (Lessons Learned)	-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무엇이며 향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⁶⁾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 등을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은 행정안전부 법규로 규정돼 있음
- 평가틀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가지 영역에 걸쳐 점검을 위한 8가지 질문으로 구성됨

<표 I -7> 행정안전부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

분야	내용
사업계획 (15)	-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사업관리 (25)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성과 (60)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사. 아름다운재단 작은변화지원사업 평가틀(조철민·김연수 2020)

- 아름다운재단은 작은변화지원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을 둘러싼 전체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사업의 요소들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부여에 중점을 두기 위한 평가틀을 구성함
- 평가틀은 주요 평가요소들을 육하원칙에 기반해 6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 측면은 평가기준을 함유한 질문형태의 15개 하위 평가요소들로 구성됨

<표 I -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성과 평가틀

사업의 측면	가치	요소
--------	----	----

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14년 제정)(<https://www.law.go.kr/LSW/admRulLInkProc.do?mode=20&chrClsCd=&admRulNm=%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EA%B4%80%EB%A6%AC%EA%B8%B0%EC%A4%80>).

왜(Why) 사업취지	부응성	- 사업취지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가?
	공유성	- 사업취지가 관련 주체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무엇을(What) 사업목적	타당성	- 사업의 목적은 타당했는가?
	효과성	- 사업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고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가?
	효과성	-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의 유무형 자원이 마련되고 있는가?
어떻게(How) 사업방식	영향력	- 사업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유용성	- 대상 지역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방식은 유용했는가?
	유용성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지원방식은 유용했는가?
누가(Who) 사업주체	자율성	-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사회 주체들의 자율성을 북돋우고 있는가?
	적절성	- 아름다운재단이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업인가?
	적절성	- 관련 주체간 역할분담과 협력은 적절했는가?
어디서(Where) 사업대상	타당성	-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은 타당했는가?
	확산성	- 본 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확산 가능한가?
언제(When) 사업기간	지속가능성	-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적정성	- 지원사업 기간은 얼마가 적정한가?

아.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기반접근 평가틀(Boesen & Tomas 2007)

-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는 국제인권기구들이 행정, 개발 등을 수행하는 단위에 적용하는 개념적 틀/framework임
- 인권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방법을, 기반은 특정한 기준과 원칙의 준수를, 접근은 실행을 위한 정책 프레임과 도구라는 의미를 지님
- 인권기반접근은 인권의 일반적인 주요 원칙들을 활용해 사업수행 단위의 내재적 정당성(도덕적, 정치적)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성(사회적 의미부여와 역량증진 등) 두 측면에서 평가하는 구조를 지님

<표 1-9> 인권기반접근 평가틀

원칙	요소	
국제인권기준과의 연결	- 인권의 기준, 규범, 원칙에 맞게 활동이 디자인 되고 수행되었는가?	
	- 활동이 직접적으로 국가, 지역사회, 또는 목표 그룹, 참여자들(이하 목표 그룹)의 인권목표와 기준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는가?	
	- HRBA 평가 결과로 향후 활동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비차별 및 차별 계층에 대한 주목	- 활동 과정에서 인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고려, 공정한 접근이 제공되었는가?	
	- 활동 결과로 인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제공되었는가?	
	- 비차별 및 불평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참여	목표 그룹	- 활동계획이 모든 목표그룹에게 공정하고 동등하게 참여자격을 부여하였는가?
		- 참여의 방식을 다양하며, 참여는 자발적이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가?

	주관 단체	- 활동단체 내부의 의사소통과 참여는 원활했는가? - 활동 담당자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가?	
역량 강화	목표 그룹	- 활동 수행의 결과로 목표그룹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조성되었는가? - 활동 수행의 결과로 목표그룹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적절한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가? - 활동 수행의 결과로 목표그룹의 삶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 활동 수행의 결과로 목표그룹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관 단체	- 활동 담당자와 단체의 역량이 증진되었는가? - 인권의 실현을 위해 더 큰 힘과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동원되었는가? - 애드보커시 프로세스가 강화되고 있는가? - 인권단체간 네트워킹과 연대가 활발히 일어났는가?
			투명성

자. 가장 중요한 변화 기법(Davies & Jess 2005)

- 국제 구호단체들의 요청과 후원에 기반해 개발된 가장 중요한 변화(Most Significant Change) 기법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에 기반한 질적 평가 방법임
- 이는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수많은 변화의 이야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성과와 영향을 수집하고 선택하는 비정형화된 과정을 거침
- 가장 중요한 변화 기법의 실행 단계
 - 1단계: 시작하기, 관심 이끌어 내기
 - 2단계: 변화의 영역들 규정하기
 - 3단계: 평가기간 설정
 - 4단계: 중요한 변화 이야기 수집
 - 5단계: 가장 중요한 이야기 선택
 - 6단계: 선택 프로세스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 7단계: 스토리 검증
 - 8단계: 정량화(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 9단계: 2차 분석 및 메타 모니터링
 - 10단계: 시스템 수정(조직·전략·사업에 반영)

- 이 기법은 엄밀하고 양적인 평가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음
 - 예상치 못했던 성과의 발견
 - 다양한 관점의 구성적 활용을 촉진함
 - 이해관계자들을 지도하기보다 자발적, 좀 더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
 - 평가 사안을 맥락 속에서 다룰 수 있음
 - ‘무엇이 중요한가’에 평가에 초점을 두도록 촉진함

차. 시사점

- 시민사회 공익활동이 지닌 가치지향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표준적인 평가들이 부재한 가운데, 평가의 주된 관점과 목적에 따라 서로 결이 다른 평가들이 제안·시도되고 있음.
- 다양한 평가들 사례들에 내포된 지향은 크게 △사업이 취지와 계획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하는 사정(assessment)에 주안점을 두는 것과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이 지니는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평가(evaluation)의 근본적 의미에 부합하는 것의 두 갈래로 구분되며, 각 평가들은 주된 관점과 목적에 따라 어느 한 가지 지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남
- 사정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 평가대상을 되도록 구체화하고, 엄밀한 평가가 가능한 요소들로 한정하는 경향으로 이어짐. 반면 가치부여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과정이나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요소 등 전체 맥락 속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짐
- 평가대상을 구체화하는 경향은 다시 평가들을 세분하고, 각 평가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정량적 평가를 중시하는 경향과 친화성을 지님. 반면 평가대상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적인 평가자의 인식과 해석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를 중시하는 경향에 조응함.
- 평가들의 활용에 있어 대체로 전자는 활동지원·투자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 후자는 활동의 가치를 발굴하고 복돋우는 상황에 부합함

<표 I -10> 평가들의 경향적 구분

	사정(assessment)	평가(evaluation)
목적	사업 취지, 계획에 따른 추진 점검	사업성과와 사회적 영향의 가치 발견,

		부여
요소	평가대상 구체화, 엄밀한 평가 가능 요소 한정	평가대상의 사업과정 및 사회적 요소 등 점검
방식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량적 평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적 평가자의 인식과 해석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
활용분야	활동지원 및 투자의 지속성 판단	활동의 가치발굴 및 의미부여

2) 분석틀의 구성

가. 구성방향

○ 가치부여

- 평가를 위한 분석틀은 사업의 결점을 점검하는 사정이나 엄격한 객관성에 기반한 심사보다는 사업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함으로써 실행 주체와 활동을 복돋우는 본질적 의미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함

○ 맥락기반

- 지원대상 사업의 과정과 1차적 결과를 넘어 실행주체와 지원주체, 인권운동계와 사회 등 사업을 둘러싼 전체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의미를 포착하고자 함

○ 적정구조화

-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다양한 가치와 의미부여에 중점을 두면서도 사업의 효과적이고 합당한 추진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점검의 요청에도 부응해야 함
- 풍부한 의미포착에 강점을 지닌 비구조화된 분석틀과 객관적 평가에 강점을 지닌 구조화된 분석틀의 사이에서 적정구조화된 분석틀을 지향함

○ 상호소통적 타당성

- 가치와 의미부여에 대한 중점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측정’보다는 ‘해석’의 방법을 활용하게 됨
- 이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도 활용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경험이며 이는 주로 면접을 통해 파악될 것임
- 해석의 타당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들을 교차시키고, 이를 객관적 자료나 인권운동과 사회적 맥락에 견주어 해석하고, 이는 다시 이해관계자들에게 환류되는 개방적·지속적 상호소통적 과정을 통해 형성해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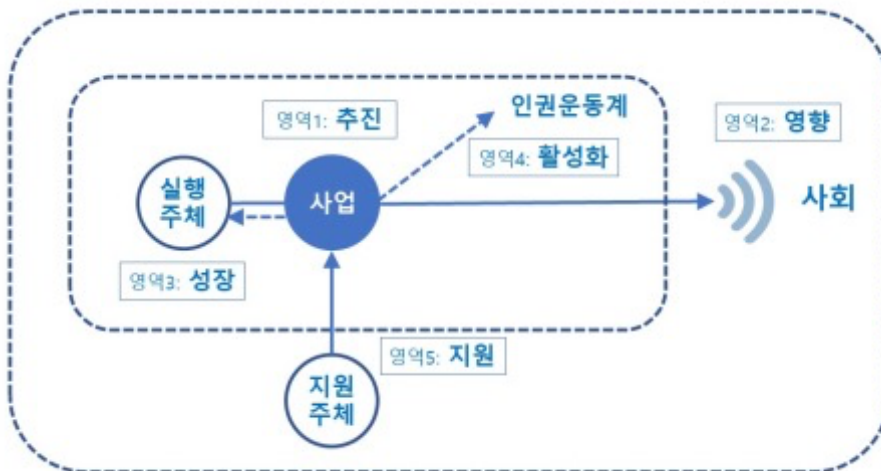
○ 탐색적 단계

- 앞서 제안한 방향에 입각한 평가를 한 번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향후 과정이 필요함
- 이번 연구에서 제안되는 분석틀은 완성본이 아닌 초안에 가까움. 향후 개방적·지속적 상호소통적 과정 속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함
- 지원사업 이해관계자들의 경험과 견해는 사업평가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분석틀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임

나. 평가의 맥락

-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사업은 인권운동단체나 활동가가 아닌, 이들이 펼치는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 사업이 가장 중심임
- 이를 중심으로 전체 맥락으로 시야를 넓히면 지원대상 사업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 지원주체(다음세대재단)와 실행주체(인권단체·활동가)의 측면이 나타남
- 아울러 지원사업을 통해 ‘인권의 가치 증진’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사회와 지원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증진해 갈 토대인 인권운동계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앞선 논의를 정리하면, 확장된 맥락을 구성하는 지원대상 사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실행주체와 지원주체, 인권운동계와 사회 등 4가지 측면의 상호관계 속에서 ‘추진’, ‘영향’, ‘성장’, ‘활성화’, ‘지원’ 등 5가지 평가영역이 도출됨

[그림 1-2] 평가의 맥락과 영역



다. 평가영역과 요소

○ [추진] 사업이 합당하게 추진되었는가?

- 지원대상 사업은 실행주체와 지원주체간 관계의 매개체이며, 이를 둘러싼 전체 맥락의 핵심적 요소임
- 본 분석틀이 중점을 두는 가치와 의미 부여도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잘 추진될 때 가능함
- 사업추진에 관한 평가에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됐는지, 사업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인권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사업 추진 중 겪은 변수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졌는지 등의 요소가 포함됨

○ [영향] 사업을 통한 변화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 최근 들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해 그 의도가 선한 만큼 결과도 선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사업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의 핵심적인 원천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임
- 사업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평가에는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인권가치 증진에 관한 영향 등이 포함됨

○ [성장] 사업을 통한 활동주체의 성장이 있었는가?

- 실행주체인 인권단체나 활동가가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간접적인 효과에 해당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많은 경우 보조금 지원이 급급한 사업추진이나 실행주체의 소진 등을 초래해 내실있는 사업성과와 실행주체의 성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청됨
- 사업을 통한 실행주체의 성장에 관한 평가에는 활동가와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의 변화, 그리고 해당 단체의 역량이나 자원의 확충 여부 등이 포함됨

○ [활성화] 인권운동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의미한 간접적 효과로는 인권운동계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들 수 있음
-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취지인 인권가치의 증진은 장기적으로 튼튼한 토대구축, 생태계 다양화, 의제 및 교류증진 등을 통해 인권운동계의 활성화가 실현된다 할 것임

- 인권운동계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지원사업을 통해 인권운동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나 방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권운동 주체간 연결과 연대가 강화·확장됐는지 등을 통해 평가하고자 함

○ [지원]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가?

- 다음세대재단의 고민이 반영된 사업의 지향과 방식 역시 본 연구의 평가과정에서 유의미한 평가대상이 됨
- 최근 공공·민간영역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들이 증가하는 한편 기존의 지원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지원사업이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지원사업의 지향과 방식이 지닌 사회적 의미로부터, 지원대상에게 요긴한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원주체와 실행주체간 자율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됨

<표 I -11> 평가틀의 영역과 요소

평가영역		평가요소
1. 추진	사업이 합당하게 추진되었는가	1-1. 사업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추진됐는가? 1-2. 사업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게 추진됐는가? 1-3. 변수(코로나19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영향	사업을 통한 변화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2-1. 설정한 사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는가? 2-2. 사업이 다루는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2-3. 인권의 가치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성장	사업을 통한 활동주체의 성장이 있었는가?	3-1. 사업을 추진한 활동가는 역량의 성장이 있었는가? 3-2. 사업참여자(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3-3. 사업 추진 단체는 역량과 자원이 강화됐는가?
4. 활성화	인권운동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4-1. 인권운동 의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가? 4-2. 인권운동 방식에 발전이 있었는가? 4-3. 관련 네트워크(연대)가 강화·확장됐는가?
5. 지원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가?	5-1. 지원사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5-2. 지원대상에게 요긴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3. 지원방식이 단체들의 자율성을 북돋우고 있는가?

Ⅱ. 인권운동 현황 및 지원기관 분석

1. 인권운동의 역사를 보는 관점

1) 역사적 과정으로서 인권운동

가. 인류 보편의 경험으로서 인권운동

- 깊은 뿌리를 파헤쳐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열망, 그것을 저해하는 권력과 불의에 맞섰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돼온 인간해방을 위한 분투는 보편적인 인권 이상과 맞닿아있음.
- 엄혹한 식민시절과 비극적인 전쟁, 권위주의 독재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터를 둔 인간해방을 향한 말과 행위가 세계사적 흐름과 만나 오늘날 인권의 이념과 실천을 낳았음(류은숙 2019, 13).

나. 연속적 과정으로서 인권운동

- 한국 인권운동의 기원은 1980년대 민주화시기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인권운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인권운동, 개화기 인권사상의 전파나 동학농민혁명, 나아가 조선조 민(民)의 저항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어느 시기를 설정하든 해당 시기의 활동은 이전 시기 활동의 역사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 인권운동은 어느 시기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 진화해 왔고, 이후로도 진화해 나갈 것임.
- 어느 시기에나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저항하고 사회적 가치들을 형성해 왔음.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공동으로 축적해 온 운동의 경험은 중요한 역사적 계기와 만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됨.

다. 인권운동에 대한 역사적 관점 필요

- 한국 인권운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의 역사적 과정에 관한 관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특히 여성인권운동, 장애인인권운동, 성소수자인권운동 등 부문별 운동은 꾸준히 다뤄져 왔지만, ‘인권 일반’에 관한 혹은 인권운동 전체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정정훈 2020, 266).

2) '제도'와 '운동'의 상호작용

가. 상호작용이 맥락에서 형성되는 인권운동

- 인권의 역사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인권의 증진에 큰 진전을 가져온 제도의 이식이나 밑으로부터의 사회운동, 그리고 의식적으로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개된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정근식 2019, 17).
-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전통적 인권관념이나 19세기 후반 이래의 근대적 인권 개념의 역사라는 거시적 맥락과 1970년대 이후의 현재적 맥락, 즉 국가와 시민사회/민간 부문, 제도와 운동에 관한 논의와 실천에서 부정합이 나타남(이정은 2013, 65).

나. 제도와 운동에 대한 통합적 관점 필요

- 실천적으로는 시민사회 인권운동과 정부의 각종 법제나 기구가 양극단에 배치되어 있지만, 학제와 실천의 그 어떤 분야도 단독으로는 인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이정은 2013, 66).
- 현재 한국 인권운동은 변혁운동이라는 문제의식과 국제인권기준이라는 두 계기가 접합돼 있지만, 이들이 융합된 새로운 맥락이 구축되지 않아 내적 긴장으로 남아 있음(정정훈 2020, 96-97).

3) '보편'과 '특수' 사이의 긴장

가. 인권운동이 지닌 운동과 제도 사이의 긴장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긴장과 연관돼 있음.

나. 동아시아/한국이 지닌 특수성

-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고전적 인권 모델은 실천과 운동에 의해 정의가 승리해 법제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서구 모델인데, 식민지를 경험한 동아시아에는 부합하지 않음.
- 특히 한국의 경우 제헌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이나 승리의 결과라기보다는 선진국을 모방한 국민국가의 '모듈적 장치'로 도입된 측면이 강함.

- 이로 인해 기본권 규정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법제로 규정된 권리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다시 ‘쟁취’되는 과정을 거침(이정은 2013, 66).

다. 제도와 운동, 보편과 특수성의 수렴 필요

- 민주화 이후 인권개념은 보다 보편성을 지향하는 인권 개념과, 다소 특수성을 지향하는 인권 개념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적절한 인권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Cho Hyo-Je. 2010).
- 이런 분화의 흐름은 인권운동에 있어서는 유엔 인권헌장을 비롯한 규범들을 각국이 준수하고 각국의 인권정책과 운동이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해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기준이행’ 접근과 인권이 실현될 확률적 개연성을 높이는 조건을 중시하는 ‘조건기반’ 접근의 분화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운동간 연대와 통합적 관점 형성이 과제로 제시됨(조효제 2018).

2. 한국 인권운동의 뿌리

1) 인권운동의 맹아들

가. 근대화기

- 조선왕조 시기의 시도들(김태웅 2019)
 - 1692년 이충경 역모사건으로 일어난 천민반란에서는 노비제 혁파, 부세제도 개혁, 잔혹한 형벌폐지, 나아가 조선왕조 타도와 같은 주장이 제기됨.
 -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에서 나아가 만인을 평등한 존재를 넘어서 참정권, 저항권을 지닌 존재로 주장함.
 -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주창된 폐정개혁안에는 노비제도 폐지, 천민대우 개선, 청춘과부 재가허락 등 평등권에 기반한 주장들이 포함됨.
- 대한제국 시기의 시도들(김태웅 2019)
 - 개화파의 서구 천부인권론 도입과 이에 기반한 1894년 갑오개혁과 그 결과 물인 흥법14조는 신분제 철폐 등 진일보한 인권적 조치들을 포함하게 됨.
 - 개화파의 시도는 민(民)의 참정권 불인정, 일본의 내정간섭 등 내외적인 한

- 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후 근대적 인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 1896년 창립된 독립협회는 평등권에 기반한 노비제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등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참정권은 지식인층으로 한정하고, 농민혁명 등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음.
 - 이런 흐름은 이후 일진회(1904), 헌정연구회(1905), 대한자강회(1906) 등의 이념과 활동에도 이어짐.
 - 한편 미국에서 조직된 공립협회(1903) 등은 이들에 대해 국민을 위한 평등 자유 주창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만을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신민회(1907)는 최초로 민주공화제의 이념을 주창하기도 함.

나. 일제강점기

○ 독립운동과 인권(김태웅 2019)

- 식민지배 자체가 극단적인 반인권적 상황으로 이 시기 인권운동은 대체로 독립운동과 궤를 같이 함.
- 독립운동가들에 의한 대동단결선언(1917), 2·8독립선언(1919), 대한독립선언(1919)은 식민지배의 부당함, 일제의 인권침해와 함께 민주주의를 주창했고, 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1919)의 기본이념으로 이어짐.
- 이를 통해 개화파 인권론의 한계를 넘어 민(民)의 참정권과 기본적인 인권적 조치들이 포함되고, 이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으로 이어짐.

○ 인권운동의 초기 모습들

- 독립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근대적 인권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의미한 인권운동들이 나타남.
- 1923년 전국적인 백성들의 신분해방 운동인 형평사(衡平社)운동(이정은 2013, 64).
- 1920년대부터 YWCA와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신여성들의 자유연애, 전통적 가부장제의 폐해, 조혼과 공창제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 전개(조철민 2014, 78).
- 일제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정근식 2019, 19).
- 인권사적 맥락에서 일제강점기의 유산은 매우 심대한 것이지만, 충분히 회복

되거나 치유되지 않았으며, 광복과 정부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됨(정근식 2019, 19).

2) 1948년: 제도와 운동의 상호작용 형성

가. 정부수립과 인권의 제도적 기초와 한계

○ 형식화되고 역행하는 제도

- 인권이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편화 정식화되는 과정에 비추어보면,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의 건국시기가 한국 인권의 출발기라 할 수 있음(이정은 2013, 63).
-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해임. 제헌헌법에는 민주공화제와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이 정초됨.
- 아울러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일 행사를 매년 개최했음. 이는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반공과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커서 인권의 내재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이정은 2013, 70).
- 이에 따라 1차(발췌개헌), 2차(사사오입개헌) 모두 정치적 혼란과 정권연장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국가보안법(1948)이나 경찰제도 등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제한하는 법제도 도입이 이루어짐.

○ 제도와 현실의 괴리와 인권운동

- 국가형성기 일부 법과 제도들이 일제강점기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해방 후에도 지속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식민지배, 반공, 그리고 독재적 권력유지가 주를 이루고 사회에 대한 통제와 동원이 이루어짐(이나미 2017, 147, 151).
- 혼란한 사회상황에서도 인민들은 정부와 경찰,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인권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함(이정은 2013, 64).
- 이 시기는 정부의 요식행위인 인권주간, 정권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형식적 인권사업이 주를 이뤘고 인민들도 인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런 제도와 일상, 관행과 저항의 영김과 축적이 어우러져 이후 인권운동으로 발현될 토대가 형성됨(이정은 2013, 87).

○ 국가형성기 인권운동들

- 정부는 인권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며 수단화했지만, 민간에서는 자신들의 생존 문제와 공권력의 폭력을 고발하는 데 인권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인권을 내면화하기 시작함(이정은 2013, 77).
- 인권옹호단체들은 제도에 의한 설립·활동으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을 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이정은 2013, 78).
- 정부의 인권주간 행사시기에 운영된 인권상담소를 통해 전쟁 이후 부모를 잃은 ‘소년’과 빈민층의 일자리였던 ‘식모’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함(이정은 2013, 81).

나. 혁명과 반혁명 국면

○ 혁명 이후의 개혁, 반혁명으로 인한 좌절

- 1960년 4·19혁명 이후 제3차·4차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조항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 사전허가·검열 폐지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일보한 개혁이 이루어짐.
- 아울러 3·15부정선거 주모자 및 향의군중 살상 책임자 처벌 헌법적 근거 마련 및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일련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됨.
- 하지만 이듬해 일어난 5·16군사정변으로 개혁적 정부가 붕괴되고, 혁명을 통한 개혁적 조치들이 무위로 돌아감.
- 군사정부에 의한 제5차(1962)·6차(1969)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폐지, 대통령 연임 횟수 연장, 의회권한 약화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짐.
- 아울러 기존에 시행 중인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에 더해 인권운동의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에 대해 정부의 통제·동원을 위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1961), 재건국민운동에관한법률(1961), 한국반공연맹법(19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3), 국민운동에관한법률(1963) 등을 제정함.

○ 혁명과 반혁명 국면의 인권운동

- 4·19혁명의 영향으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 제주4·3항쟁 피해자 가족을 중심으로 진상 재조사 요구 활동이 전개됨(이정은 2013, 83).

-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통제조치 속에서도 인권운동이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시내버스 여차장들이 인권주장을 맞이해 기업주의 횡포를 고발하거나, 농마주인들이 국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됨(이정은 2013, 81).
- 1967년에 발생한 동베를린 사건은 한국의 인권문제를 유럽에서 이슈화한 계기가 됐고, 1970년 전태일의 분신,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은 노동자·빈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됨(정근식 2019,21).
- 이후 카톨릭노동청년회(J.O.C) 등 종교기반 단체의 활동, 풍한방직 임금인상 요구투쟁(1963), 강화도 삼도직물 사건(1968), 삼화제분 파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관계법 개악 위헌 주장 투쟁 등이 이어짐(길주희 2015, 265).
- YMCA, YWCA 등의 단체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 구속·수감 학생 석방 서명운동(1966), 학원수호 서명운동(1966), 삼선개헌 반대 서명운동(1969), 가족법 개정운동, 여성 여행원 결혼각서 폐지운동 등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함(조철민 2014, 83, 113).
-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권옹호단체들도 활동에 한계는 있었지만, 미혼인 신고 피해 여성 구제, 인혁당 사건 무료변론, 파주 나무꾼 사살 사건 조사 등 유의미한 활동 전개(이정은 2013, 78).

3.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공진화

1) 1972년: 저항과 자유권

가. 유신체제와 민주화·인권운동

○ 유신체제와 민주주의의 와해

- 박정희 정권은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제7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조항을 개정하고, 영구집권과 독재정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
- 아울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구속적부심 사제가 폐지됨. 아울러 그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 온 인권관련 제도와 정책들도 폐지됨(이정은 2013, 77).
- 이를 기반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전사회적인 공안정국이 조성되면서 인권침해가 일상화 됨.

- 특히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과 제2차 인민혁명당(인혁당)사건을 통해 한국에서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사형집행으로 외신의 비판이 이어지고, 미국 카터 대통령과 인권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음(정근식 2019, 23).

○ 자유권 중심의 인권운동 형성

- 이 시기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성됐고, 정치적 저항의 자유와 국가폭력으로 부터의 자유를 위한 활동이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었음(이정은 2013, 82; 길주희 2015, 265).
- 민청학련 사건은 이 시기 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엄혹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은 종교계와 국제단체가 운동의 시작을 알림(이정은 2013, 85).
- 민청학련 사건에 저항하기 위한 목요기도회를 시작으로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발족하고, 1972년에는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설립됨.
- 아울러 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자 가족들에 의해 1974년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와 1976년 한국양심범가족협의회가 출범함(정근식 2019, 22).
- 유신헌법 폐지 개헌청원 서명운동, 고문반대 국제서명운동, 사형제 폐지 서명운동(1974), 노동자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위한 서명운동(1977), 양심범(정치범) 석방에 관한 서명운동(1978) 등 대중적인 활동도 이어짐(조철민 2014, 113).
- 한편 경제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농민의 권익옹호와 조직화를 위해 도시산업선교회, 노동사목, 크리스찬아카데미, 가톨릭농민회 등의 활동이 전개됨(류은숙 2019, 19-20).

나. 신군부 정권과 민주화·인권 운동

○ 신군부 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

-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 거세지는 가운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는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종결됨.
- 정국수습을 위해 최규하 정부가 출범해 개헌논의와 긴급조치로 사법처리된 인사들의 복권 등이 이루어지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

나는 이른바 ‘서울의 봄’ 국면이 형성됨.

- 하지만 1979년 12·12군사반란을 통해 부상한 신군부가 1980년 5·17 비상계엄 조치를 내리고, 광주 지역 시위참여자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함.
- 같은 해 9월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고, 10월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압력에 의해 행복추구권을 비롯하여 기본권 관련 조항들의 일부 보완이 이루어짐.
- 사회적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유화조치로 해외여행 자유화와 같은 문화적 조치와 함께 시민사회 활동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마련됨.
- 하지만 1970년대에 비해 확대되고 격렬해진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면서, 자유권은 여전히 중심적인 인권문제로 제기됨.

○ 계속되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 한국의 인권과 사회운동 발전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5.18광주민주화운동 자체가 민주화의 요구와 함께 계엄군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었음(정근식 2019, 25).
-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계승은 이후 사회운동의 이념과 의미형성 영향을 미쳤고,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처벌요구는 1980년대 인권운동의 핵심적인 의제가 됨(길주희 2015, 266).
- 아울러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1981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전국민주학생연합(전민학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사건, 1982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사건, 1984년 시위참석 여학생 경찰 성추행,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우종원 실종,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을 계기로 폭력·구속·의문사로 인한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78-679; 684-685).
- 이에 저항해 고문및용공조작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1983), 양심범가족협의회(198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1985), 민가협 산하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1986) 등 창립(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82).

2)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운동의 변화

가. 민주화의 진전

- 1980년대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의 규모와 강도가 고조되고, 이

에 대한 정권의 탄압도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은 전국적인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짐.

- 6월민주항쟁 직후 당시 여당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 사회의 자율성 등 개혁적 조치가 포함된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있어 민주화가 진전됨.
- 같은 해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4·19혁명의 민주이념이 헌법전문에 명시되고,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해 군사정권 시절 후퇴한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조항들이 회복됨.
-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군사정권이 이어짐.
-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여성단체연합(198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989)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이 활성화 됨.
- 1990년 한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함.
-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폐지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의 계기도 마련됨.

나. 인권운동의 변화

- 자유권 기반 인권운동의 심화 발전
 - 1985년 김근태 고문, 1987년 박종철 고문·이한열 피살 사건 이후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이 공론화 되고, 각계각층에서 고문근절 및 최루탄 방지 운동이 전개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86; 조철민 2014, 87-88).
 - 이 시기 결성된 ‘박종철 고문치사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고문추방 범국민기구의 활동은 국회 인권특별위원회 설치논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의 시초가 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87).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은 구속가족 석방 중심에서 1989년 이후 고문수사관 이근안 현상수배, 양심수 석방운동,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목요 집회, 인권의 날 콘서트 등 인권운동 일반으로 활동이 확장됨(길주희 2015, 266).
 -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양심수’라는 개념이 인권운동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됨.

1989년 양심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양심수후원회가 출범하는 한편, 1950-60년대부터 감금돼 온 ‘미전향 장기수’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활동이 전개됨(정근식 2019, 28).

-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에 인권소위원회, 장기수후원회가 설치되고, 이후 천주교인권위원회로 이어지게 됨.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특별위원회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1990년 불교인권위원회가 출범해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건립, 비전향 장기수 송환, 사형제 폐지 등을 주도함(류은숙 2019,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89).
- 1988년 출범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 및 양심수 석방, 고문추방, 악법철폐 등의 활동을 전개함(길주희 2015, 267).
- 1989년에는 산청·함양양민희생자유족회가 결성되는 등 민주화와 함께 국가 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인권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92).

○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 한국 사회운동은 민주화 이전 여러 운동이 민주화의 공동목표를 향해 연결돼 있던 ‘거대한 운동’에서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의제와 활동으로 분화되는 ‘차이의 운동들’로 전환되면서 인권운동의 분화도 시작됨(조희연 외 2010).
- 1990년대 초 정부의 인권보고서의 왜곡된 내용을 폭로·시정하기 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반박보고서를 제출함(길주희 2015, 268).
- 1983년 여성의 전화 창립과 직장 내 여성차별문제, 성폭력 관련 상담·입법 활동, 198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등 부문별 인권운동이 나타남.
- 1989년에는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노동인권회관이 설립돼 산업재해, 체불임금, 해고노동자 문제 대응, 상담 지원, 노동인권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86).
- 1990년 ‘인권운동연구모임’의 활동은 이후 인권의제 일반에 천착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창립과 활동의 시초가 됨(정근식 2019, 28).

4. 민주화 이후 인권운동의 활성화와 굴곡

1) 1992년: 인권운동의 본격적인 전개

가. 역사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의 접합

○ 문민정부 시기 개혁조치와 시민사회 활성화

- 199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금융실명제, 역사바로세우기, 3대 정치개혁 법안추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다양한 개혁조치들이 추진됨.
- 아울러 과거청산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광주보상법, 종군위안부법, 5·18민주화운동법 등이 제정됨.
- 하지만 당시 여당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한 개혁조치의 한계가 나타나고, 민주화 이후 대형참사,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폭력적인 철거, 노동관계법 개정, 미군범죄, 정보통신 등 다양한 인권 이슈들이 부각됨.
- 이 시기 시민사회 정책 관련해서는 민주공동체실천지원사업(1994~) 실행, 사회단체 설립과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서 신고·규제로 통제 약화 등 이전 군사정권 시절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루어짐.
- 국제적으로는 1995년 국제연합(UN)이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채택하면서 과거 청산 관련 이슈가 부각됨(류은숙 2019, 37).

○ 전문화된 인권운동의 활성화

- 그간 자유권 중심의 인권운동은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인권 관련 이슈와 피해자들의 호소가 터져 나오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길주희 2015, 268).
- 이전 민주화 운동의 부문으로 성장해온 인권운동이 고유한 의제를 다루는 운동영역으로 전문화되는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 참여는 중요한 계기가 됨(정정훈 2020, 260).
- 인권운동 주체들은 대회 전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이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결성을 통해 그간 한국 인권운동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전세계적 인권운동의 맥락의 접합이라는 공동의 경험 축적(류은숙 2019, 26).
- 기존의 엠네스티나 종교계 인권위원회에 더해 1993년 창립된 인권운동사랑

방은 인권 의제 일반을 다루는 전문적 단체가 출범하기 시작했으며, 특정 자유권 의제를 다루는 단체들도 생성됨.

-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악법 폐지, 국가권력 감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함(길주희, 2015, 268-269).
- 민주화 이후 다양한 계층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인권운동도 활성화 됨(류은숙 2019, 28).
- 아울러 민주화 이후 자유권 관련 후속 과제라 할 수 있는 과거청산 관련 인권운동이 활성화 됨. 5·18 책임자 처벌 운동, 1990년 창립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수요집회를 비롯한 관련 활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보상·치유 지원활동 등이 전개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92).

나. 인권운동의 성장과 분화

○ IMF 경제위기와 개혁적 정권

- 1980년대부터 이어온 한국 경제호황 속에 한국은 국민소득 1만불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이 정권의 성과로 홍보됨.
- 한편 국외적으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흐름이 강화되고, 국내적으로는 노동법 개정, 기업규제 완화 등 관련된 조치들이 추진됨.
- 1997년 일어난 IMF금융위기 사태는 그 자체로 많은 경제적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한국 사회의 급격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편입으로 경제위기와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친 계기가 됨.
- 1997년, 200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개혁적 성향을 지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연달아 출범하게 됨.
- 이 시기에 남북 평화증진, 정치·사회개혁 등에 관한 많은 조치들이 추진되고, 제주4·3특별법(2000), 의문사진상조사법(2000), 국가인권위원회(2001), 비전향 장기수 송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친일·반민족 진상규명 위원회(2005) 등 인권의 제도화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전을 이룸.
-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UN)이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류은숙 2019, 37).
- 시민사회와 관련해 비영리민단단체지원법(2000),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6) 제정,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지원정책이 추진됨.

- 반면 경제위기 극복, 시장개방, 테러와 전쟁 등 많은 사안들에서 한계들을 나타내 시민사회의 비판·저항에 부딪치기도 함.

○ 다양한 인권운동의 활성화

- 제도화를 위한 노력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와 개혁적 정부출범에 따라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 됨.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노력함(정근식 2019, 30). 과거청산 관련해서 민간인학살대책위원회(1999)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련 법령 제정이 이루어졌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92; 류은숙 2019, 36).

- 자유권에 관한 남은 과제들

아울러 계속되는 자유권 관련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폐지, 군대 내 폭력과 군의문사와 관련한 병영인권연대(1997), 건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1999), 군경의문사가족협의회(2000), 군사상자유가족연대(2001) 등의 활동이 전개됨(길주희 2015, 270).

- 사회권 운동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주류화는 인권운동이 경제의제, 사회권에 집중하는 계기가 됨(정정훈 2020, 183). 이와 관련해 사회권 규약해설서 발간(2003), 차별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 금융피해자운동, 고려대 청소노동자(2004), KT 상품판매팀 노동자, 이랜드 여성노동자(2007),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사건 등 노동자 연대활동, 주거권 담론이 전개됨(류은숙 2019, 33).

- 다양한 인권운동의 의제들

아울러 다양한 의제의 인권운동들이 활성화 됨. 여기에는 장애인 인권(이동권, 탈시설 및 자립생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인권(선거연령 인하), 정보인권(지문날인거부, 인터넷, CCTV, NEIS 등을 통한 감시, 개인정보 집적 반대 등), 여성인권(반성폭력, 성평등 등), 환자인권(한센인 권익 등), 평화권(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대추리·매향리 이슈 등), 국제연대 활동(팔레스타인 평화지원, 프리버마 캠페인, UN인권이사회 참석 등)(길주희 2015; 미류 2017; 류은숙 2019; 정근식 2019).

- 지역 인권운동

이 시기 인권운동 활성화의 한 축은 지역사회에서의 흐름임. 인권운동사랑방(1993), 인권실천시민연대(1999) 등 전국 수준의 인권단체의 활성화와 함께, 1993년 수원 인권상담소(이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해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등지에 지역 인권단체들이 설립됨(오창익 2004).

- 인권교육과 연구

1990년대 초반부터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1998년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학교·캠프, 1999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교육 길잡이 발간으로부터 인권교육이 본격화 됨. 이후 인권교육 활동가·교사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인권교육센터 ‘들’(2008)이 창립됨. 인권연구 역시 몇몇 학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다가 연구활동가들이 등장하고 인권연구소 ‘창’(2007), 인권정책연구소(2011) 등이 창립됨(배경내 2020, 343-344).

2) 2008: 인권의 역물결과 인권운동

가. 신자유주의 정책과 민주주의의 후퇴

-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부가 출범하고 ‘MB노믹스’로 대표되는 대규모 개발계획과 도심재개발 사업에 의한 강제퇴거,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폭등, 의료민영화 정책 등이 추진됨(류은숙 2019, 34).
- 하지만 개발·성장 이면에 나타나는 불평등·부정의의 문제가 부각되고, 경제성장 둔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빈곤층 증가,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2008), 용산참사·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2009), 한진중공업 정리해고(2010), 밀양 송전탑 건설·강정 해군기지 건설(2012) 관련을 둘러싼 투쟁이 촉발됨.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수적 정권이 이어지는 한편, 정권 초기부터 부정선거 의혹,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사 사건 등 민주

주의의 후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인권침해, 진주의료원 폐원 등 사회권의 후퇴 등이 나타남.

- 반면 2007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1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인권조례 제정하는 흐름이 나타남.
-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2008년 촛불시위 참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나 소위 진보성향 단체,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을 비롯해 통제와 선택적 동원의 흐름이 다시 나타남.
- 아울러 시민사회가 진보적 부문과 보수적 부문으로 분화되면서,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 혐오문화 등의 이슈에서 보수단체들의 인권운동 성과에 대한 공격으로 이른바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의 양상이 나타남(최장집 2010, 227).

나. 인권운동의 저항과 응전

- 불의에 대한 저항
 -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참여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항의, 국제엠네스티 조사관 조사활동 진행(길주희 2015, 271).
 - 201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초유의 등급보류 판정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길주희 2015, 272).
 -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성주 사드 기지 등의 이슈에 대한 ‘SKY ACT’ 공동행동 및 당사자들의 저항권 옹호를 위한 활동(류은숙 2019, 34).
- 사회권 운동의 심화
 - 심화된 노동운동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 담론 제기(정정훈 2020, 206).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고공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버스’(2011), 대한문 앞 ‘함께 살자! 농성촌’을 통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중소기업 생존권보장, 장애인·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류은숙 2019, 34-45).
- 소수자 운동
 -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운동을 비롯해 장애인탈시설운동 등이 본격화됨.

○ 반차별 운동

- 반차별은 2007년부터 시작돼 2010년대 내내 인권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음. 인권단체를 비롯한 백여 개 단체가 결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11)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류은숙 2019, 34).
- 애초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등 20개의 차별금지조항이 검토됐지만, 다양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반대에 부딪쳐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5. 동향: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1) 2016: 촛불 이후 인권운동

가. 2016 ‘촛불’과 현 정부

- 소위 ‘국정농단’과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범죄’에 대응하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남.
- 해를 넘긴 촛불시위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끝에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한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내려짐.
- 곧이어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함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 계승을 천명하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 공직자수사처 신설 및 검찰개혁, 남북관계 개선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만 임기 내내 난항을 겪게 됨.
- 인권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2018), 경찰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활성화 등이 이뤄졌고,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확대, 군인권보호관제 등이 추진 중에 있음.
-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있어서는 민관협치가 국정 기본원리로 천명된 가운데,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2020),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

나. 2016 ‘촛불’과 인권운동

- 1987년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힘이 민주화를 이끌었듯, 2000년대부터 간헐적

으로 폭발한 촛불의 흐름은 2016년에 이르러 다시금 한국 사회의 재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됨.

- 촛불의 영향은 그간 전문적인 활동가와 단체 중심의 인권운동에 변화의 흐름이 나타남. 변화의 방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현장에서 목소리와 실천들의 활성화라 할 수 있음.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국가폭력이 자행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요구가 거세지면서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등의 시설로까지 과거청산의 요구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재)진실의힘, 장애인발바닥행동 등을 중심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도 시작됨.
- 아울러 아시인권문화연대의 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이주민 인권운동,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선언과 청소년 선거연령 인하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됨.
-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움직임이 활성화됨. 여기에는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소위 ‘갑을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고, 은폐된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운동’,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추모하는 포스트잇 행동, N번방 성착취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낙인과 혐오에 저항하는 활동, 그리고 ‘먼지차별’로 개념화 되는 일상의 혐오·차별에 대항하는 문화 형성 등이 포함됨.
- 1998년 국제연합(UN)이 결의한 ‘인권옹호자 권리선언’은 모든 사람이 인권운동가가 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기함. 여기에 한국에 있어 대다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활동과 생활상 어려움과 연계돼 2019년에는 인권재단 사람이 주축이 되어 인권운동가들의 현황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가 진행되기도 함.

2) 인권운동의 다양한 갈래들

가. 활동의제들

- 한국 인권운동이 분화·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운동의 갈래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크게 활동의제와 활동방식의 다양성으로 나타남.
- 일례로 정정훈(2020)은 한국의 역사성에 비추어 인권운동의 주요의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이슈를 다음과 같이 갈무리함.

- 자유권: 국가보안법철폐운동, 사회보호법폐지운동,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 사회권: 주거권 담론, 금융피해자권리 담론, 노동권 담론 등 생존권 운동
 - 제도화: 과거청산운동, 국가인권위운동
- 자유권 기반 운동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피해자거나 희생자들을 보호, 이들의 기본적 권리 존중(respect)을 주장한다면 사회권 기반 운동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protect)와 권리 충족(fulfill)을 요구하는 인권운동의 맥락을 지님.
- 여기에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이 인권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운동과 더불어 ‘안전’을 권리로 요구하기 위한 생명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들이 촉발됨.
- 미류(2017)는 최근 다양한 의제들과 접목되면서 넓어지는 인권운동의 지평을 다음과 같은 구호들로 정리해 제시한 바 있음.
- 평등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회,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 각자도생하라며 권리를 빼앗는 사회, 모여서 대들 권리를!
 -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 힘없으면 억울한 사회, 정의를 이룰 권리를!
 - 목숨 내놓고 살라는 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 가족 등골 빼먹는 사회, 더불어 보살필 권리를!
 - 전쟁에 갇힌 사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나. 활동방식들

- 사회운동의 존재양식은 활동으로 활동방식은 해당 운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임. 아울러 사람들은 활동방식을 통해 해당 운동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참여하게 됨(Tilly, 1986).
- 류은숙은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인권운동 주체들이 개발해 온 활동방식의 갈래들을 정돈한 바 있음(류은숙 2019, 15-16).
- 인권운동은 무엇보다 인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억압권력에 대해 저항함.
 - 인권운동은 저항할 뿐 아니라 저항의 의제를 사회 전체의 공적 약속으로 만들어 ‘권리화’하는 데 노력함.
 - 인권의 저항의제가 사회 전체의 공적 약속으로 변화하면 ‘제도화, 법제화,

기구화'될 수 있고, 인권운동은 제도화와 권력 비판을 함께 추구함.

- 인권운동은 비가시화된 고통에 이름을 붙여 공적인 문제로 만들려 함(담론투쟁).
- 인권운동은 고유한 개인의 '자기에 대한 자유'를 강화하는 데 힘씀. 법 통과만으로 이를 수 없는 변화가 각 사람 자신의 변화임.
- 인권운동은 인권감수성의 향상에도 힘씀. 인간은 상호감응 속에서 책임을 공유해야 함.
- 인권운동은 인간 존엄성 존중을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는 정치,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함.

3) 인권운동의 전망

가. 인권운동의 일상적 저변 확대

- 그간 인권운동이 많은 부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사안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며 단체별 특성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몇 가지 사안을 선택해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타 단체와의 경쟁을 지양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와 인권운동가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길주희 2015, 273).
- 한편으로는 인권단체들이 양적으로 많아졌고,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고, 인권을 연구의 주제로 삼는 연구활동가나 학자들도 늘어났고,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이나 국제연대를 위한 역량도 확대됐음(미류 2017, 26).
- 아울러 인권운동은 인권단체의 활동만이 아니라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개입하는 모든 움직임을 지칭하는 넓은 뜻을 갖고 있음(류은숙 2019, 14).
- 일상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함. 촛불을 통해 승리를 경험한 세대는 어떠한 세대보다 강한 힘을 가질 것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임. 반상회를 찾아가고, 노조를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을 후원하고, 독서모임과 영화모임을 만들어야 함.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생존을 함께 고민하는 것임. 그런 고민과 이야기와 모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임(박진 2017 11-12).
- 아울러 인권운동이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내고,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을 신장시켜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권교육이 필요함(길주희 2015, 274).

나. 운동간의 연대와 사회구조적 변화 지향

- 미류(2017)는 향후 인권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다양한 의제와 운동과의 연결을 제시함.
 - 혐오세력에 맞서 차별을 경험하는 혹은 평등을 지향하는 주체들과의 연대
 - 노동조합 및 세입자, 철거민, 장애인, 학생등 사회적 약자들의 조직하고 저항할 권리를 위한 연대
 -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조건이자 결과인 분단과 한반도 평화와 인권운동의 접목 등이 포함됨.
- 인권운동이 다른 운동과의 연결을 통한 지평 확장은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접근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됨.
- 한국의 인권운동은 변혁운동을 계승하는 계기와 국제 표준의 인권기준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변혁운동과의 단절을 통한 새롭고 고유한 운동으로 형성되는 균열과 긴장이 존재함(정정훈 2020, 266).
- ‘잘못을 고발하는 일’로서의 인권운동은 자칫하면 문제의 원인이 아닌 현상을 나열하는 고통의 전시에 그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남의 인권을 위해 일해 준다’는 식의 개별 민원 처리의 늪에 빠지거나 전지적 시점에서 도덕적 평가를 남발하는 일에 그칠 수도 있음(류은숙 2019, 38-39).
- ‘진보적 인권운동’ 담론으로 대표되는 한국 인권운동 주체들의 근본적인 고민 중 하나는 인권운동이 국제기준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좀 더 인권이 보편화 된 사회로 가기 위해 변화해야 할 사회구조에 관한 것임(서준식 1998).

다. 인권운동의 기반마련: 담론과 재생산

- 아울러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기반으로서 운동의 근간이 되는 담론의 정립과 인권단체·활동가의 재생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인권의 이론 강화가 필요함. 인권운동은 고통의 원인, 현실의 구조를 넘어서는 것을 운동의 사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음. 구체적 현실과 유리된 거대담론에 빠진다는 것과 문제의 구조적 뿌리를 파헤친다는 것이 같은 것 일 수 없음. 자유권과 사회권 양측 편향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평등한 자유’를 가치로 하는 접근을 시도하기도 함(류은숙 2019, 38-39).

- 2015년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조사’에 이어 2019년 진행된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에서 대다수 활동가들은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권재단사람, 2019).
- 재정난을 비롯한 어려움들은 인권단체와 활동가로 하여금 당장 눈앞의 문제들 해결에만 급급하게 하고, 미시적인 사안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길주희 2015, 273).
- 인권활동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은 개별적인 노력과 감내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 전문적인 활동가와 단체들을 확충하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함(류은숙 2019, 38).

6. 인권운동 지원기관·사업

1) 지원사례

가. 현황

- 21개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지원단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아옴
- 이를 운영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재단, 민간기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기업 등임

<표 II-1> 인권운동 지원기관

구분	기관
민간재단	인권재단 사람, 아름다운 재단, 비온뒤무지개 재단, 한국여성재단, 바보의 나눔 재단, 동천재단, 4.18통일재단
민간기관	사단법인 시민, 함께 걷는 아이들, 난민인권센터, 무중력지대대방동
국가/공공기관 등	국가인권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주택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재단
지방자치단체 등	서울시, 서울시 청년청, 시흥시, 천안시, 은평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문화재단, 충남노사민정협의회
기업	한미약품, 현대자동차, 에스오일, SM

나. 특성

-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인권재단 사람과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소수자 관련 활동 사업/의제의 경우 비온뒤무지개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이 많았음
- 지원규모로는 활동 의제별 차이는 있으나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재단에서는 바보의 나눔의 지원규모가 큰 편임
- 아래에서는 민간재단을 중심으로 인권운동 지원기관 및 사업을 살펴봄

2) 지원기관·사업

가. 인권재단 사람

- 소개 및 취지
 - ‘인권의 가치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비전을 갖고 2004년 창립
 - 2013년부터 공모 및 지원사업 시작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9억7천만 원을 지원해 옴
 - 미션
 - 인권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사회적 소수자의 인권활동 지원, 풀뿌리 모금을 통한 인권단체 재정지원)
 - 인권활동가의 친근한 벗(지속가능한 인권활동 조건 만들기, 인권활동가의 쉼과 재충전 지원)
 - 인권의 흙씨 널리 뿌리기(시민들의 인권의식 함양, 인권활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문화 조성)
 - 인권담론의 개발과 확산을 지향함(<인권도서관 동화> 운영, 인권담론의 개발과 연구지원) 등을 미션으로 수립
- 지원사업
 - 프로젝트 온
 - 인권활동 119: 인권재단 사람의 정기공모사업으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
 - 인권프로젝트 업: 국내 이주민과 난민의 의료지원과 건강증진 프로젝트

- 반차별데이: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제정한 인권 기념일 행사를 지원
- 119 긴급행동 지원: 인권침해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
- 코로나 10 긴급지원: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 프로젝트와 코로나 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권단체를 지원
- 일단쉬고: 인권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쉼과 재충전을 지원
- 마음돌봄: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 곁에서 함께 싸우는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에 대한 돌봄 지원

○ 지원규모

- 2019년 한해 지원액 326백여만 원
- 인건비 지원 비중은 지원사업별로 상이. 일례로 1년 지원사업인 ‘프로젝트 온’의 경우 기존에 30% 내외였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임시적으로 내부 활동가 인건비를 50%까지 확장

나. 아름다운 재단

○ 소개

-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나눔의 생활화’를 추구하며 2008년 설립
- 2001년부터 공모 및 지원사업 시작
- 미션
공익활동의 지속가능 모델 인큐베이팅: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모델 개발, 협력과 연대를 전제로 비전을 함께 할 단체 발굴, 단체의 설립 및 사업과 자립 지원
행동하는 시민기부문화의 확산: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기업, 단체, 정부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올바른 나눔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

○ 지원사업

- 건강영역, 교육영역, 노동영역, 문화영역, 안전영역, 주거영역, 환경영역 사회영역 등으로 구분해 공모 및 지원사업을 해옴
- 인권운동계가 주로 공모 및 지원받는 사업 분야는 사회참여영역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있음

공익단체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생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시민사회단체 및 풀뿌리 단체의 공익활동
목적으로 선정 후 3개월 이내 종료되는 프로젝트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 지원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의 활동가(개인/단체/모임) 및 다양
한 활동들을 연결하는 지역 자체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역활동가 역량강화지원사업: 지역활동가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활동가가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 활동

공익활동가 쉼지원사업: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쉼을 위한 여행이나 취미활동 지원

공익활동가 해외연수 지원사업: 해외사례 연구 및 조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국제회의 참석 등 활동을 지원

○ 지원규모

- 2019년 한해 지원액 6,929백여만 원
- 인건비 지원 비중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 예를 들어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
의 경우 세 가지 유형(단체지원, 시민모임지원, 스폰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각각 최대 2,0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하며, 내부 인건비 최
대 비중은 각각 30%, 10%, 0%임

다. 비온뒤 무지개재단

○ 소개

- 한국의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최초의 재단으로, 2014년 설립
- 2014년부터 공모 및 지원사업 시작
- 부설기관으로 별의별 상담연구소와 한국 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있음

○ 지원사업

- 이반시티퀴어문화 기금: 국내 최대의 남성동성애자 사이트인 '이반시
티'(http://www.ivancity.com)에서 한국 퀴어 문화의 발전을 기원하며 새
롭게 창설한 기금
- 레드파티 기금: 혐오와 무지, 성적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편견과 혐오에 대

한 인식개선사업 대한 지원, 관련 활동 지원

- 이창국연구기금: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인터뷰, 번역, 비평, 인론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지원
- 러브포원기금: 정신과 진료 혹은 심리상담 비용 일체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1천5백만 원 내외 규모, 사업별 최소 50만원~3백만 원 내외
- 인건비 지원 비중은 지원사업별로 상이. 일례로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이나 이창국연구기금의 경우 각각 최대 100만원, 1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을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함

라. 한국여성재단

○ 소개

-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창립
- 2000년부터 공모 및 지원사업 시작. 지난 20년간 500억 원을 넘는 기금을 모아 5,400개 가까운 단체에 1,600개 넘는 사업을 지원해옴

○ 지원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여성운동성장 및 확산을 위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기획공모사업
- 수시지원사업: 여성계와 시민사회의가 연대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 해결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풀뿌리여성활동가의 다양한 의제 활동 지원
- 여성문화 지원사업: 여성예술인 지원사업
-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여성활동가 쉼 프로젝트
- 유한김벌리 여성 NGO 장학사업: 성공회대 NGO실천여성학전공 장학생에게 미래여성 NGO리더십과정 장학금 제공

○ 지원규모

- 2019년 한해 지원액 2,213백만 원
- 인건비 지원 비중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 일례로,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30%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가능

마. 바보의 나눔 재단

○ 소개

- 스스로를 ‘바보’라 부른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김 추기경 선종 후 2010년 설립
- 2011년부터 공모 및 지원사업 시작
- 미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받는 올바른 나눔 문화 정착을 실현
나눔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한 적극 참여
보편적 인간발전을 위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없는 세상 추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실천

○ 지원사업

- 국외: 해외지역공동체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현지 주민들의 능력과 권리정립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
- 국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단체 지원 사업으로 단년(1년), 다년(최대 3년), 특화(최대 3년) 사업
- 기획: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사업, 보호처분 소년 지원사업,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의 미래 지원사업, 자살시도환자 지원사업, 사각지대여성가장 긴급지원 사업 등

○ 지원규모

- 2019년 한해 지원액 10,693백여만 원

바. 재단법인 동천

○ 소개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 수행하기 위해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 2009년 설립
- 2014년부터 공모 및 지원사업 시작

○ 지원사업

- 연구 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지원 관련 법·제도·조례 개선 연구, 지원방안

이나 실태조사 연구 등

- 활동 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입법 지원 활동(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교육,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활동
- 지원단체는 동 재단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함

○ 지원규모

- 연간 1천5백만 원 규모
- 사업별 5백만 원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
- 인건비는 지원사업별로 상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경우 강사료, 회의 참가비 등을 포함해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임. 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진 연구비 및 회의 참가비 등 총 연구비의 50% 이하로 책정 가능

사. 4.9 통일재단

○ 소개

-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0년 사형당한 8인 열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받은 배상금 일부를 출연해 2008년 재단 창립
- 2011년부터 공모 및 지원사업 시작

○ 지원사업

- 민주주의, 민족통일, 자주, 평화, 인권 신장을 위한 연구 및 학술 문화 교육 국제교류 및 연대사업
- 민주주의, 민족통일, 자주, 평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 활동
- 국가폭력으로 침해당한 인권을 보호, 예방하는 사업

○ 지원규모

- 매해 5천만 원 규모
- 연간 10~13개 사업을 선정, 사업당 3백만 원~5백만 원 내외 지원
- 소규모 지원이라는 점에서 내부 인건비 사용 어려움

아. 사단법인 시민

○ 소개

- 다양한 공익활동의 연결과 촉진으로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갖고 2013년 설립
- 2014년부터 공모 및 지원사업 시작
- 다음과 같은 핵심목표를 표방함
 -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 정보생산과 공유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공과제 발굴 및 실행
- 지원사업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성, 환경, 인권 등 공익프로젝트 지원
 - 인권·평화·역사 분야, 더 나은 사회,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눠 지원
- 지원 규모
 - 2019년 한해 총 2억6천4백여만 원

자. 함께걷는아이들

- 소개
 -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0년 창단한 사회복지법인
 -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 시작
- 지원사업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청소년주거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지원규모
 - 2019년 한해 지원액 6억4천여만 원

Ⅲ. 지원사업 사례분석

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개요

1) 개요

가. 심층면접의 취지

- 질적연구의 한 분야로, 일정한 의제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특정한 의제에 대해 어떠한 경험과 사유를 구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문헌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 진척 가능
- 활동가들의 사유와 경험 세계를 언어화하고 지식화하는 방법이기도 함(김성례, 1991: 7~11)

나. 본 연구와 심층면접의 적합성

-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이 지니는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평가하려는 시도에 적합함
- 사업의 과정이나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요소 등 전체 맥락 속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 취지에 적합함

다. 추진

- 기간: [1회차] 2020년 9월 ~ 2021년 1월
[2회차] 2021년 5월(추가 면접이 필요한 일부 단체)
- 대상: 7개 사례연구 대상 기관별 사업 담당자
- 인원: 총 16명(*수화통역사 2명 제외)
- 방법: 대면 및 비대면 심층면접(* 1회차 모두 대면, 2회차 모두 비대면)

<표 Ⅲ-1> 사례연구 대상 사업 기관 현황

지원기관	설립	활동기반 지역	활동가 (상근)	활동분야	지원사업	사업 구분
지구인의 정류장	2009. 1.	안산, 전국	2(1)명	이주, 난민	찾아가는 인권버스	단독
인권연구소	2000. 11	서울	3(3)명	인권 활동	인권운동 아카이브	단독

‘창’				지원		
Project ReSET	2019. 12.	전국	8(0)명	젠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독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2015. 11.	서울	6(2)명	젠더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단독
사단법인 피스모모	2012. 9.	전국/국제	10(5)명	평화	평화는 모두의 권리 - 첨단기술과 평화권 어드보카시	단독
한국농인LGBT, 서울 인권영화제	2013. 1	전국	3(3)명	LGBTQ	자긍심 넘치는 우아한 농인성소수자 되기 - 한국 농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 첫걸음	연대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2017. 5	부산	3(3)명	젠더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아카이브사업	단독

<표 III-2> 심층면접 진행

심층면접 대상		심층면접 일시	심층면접 참여자
지원대상	사업명		
지구인의 정류장	찾아가는 인권버스	2020. 10. 20.	사업담당자 2인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 아카이브	1차 2020. 10. 21. 2차 2021. 5. 26	사업담당자 1인
Project ReSET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1차 2020. 11. 11. 2차 2021. 5. 24	사업담당자 2인 사업담당자 1인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2020. 10. 20.	사업담당자 2인
사단법인 피스모모	평화는 모두의 권리 - 첨단기술과 평화권 어드보카시	2020. 10. 6.	사업담당자 1인
한국농인LGBT, 서울 인권영화제	자긍심 넘치는 우아한 농인성소수자 되기 - 한국 농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 첫걸음	2021. 1. 23.	사업담당자 4인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아카이브사업	1차 2020. 11. 5. 2차 2021. 5. 29.	사업담당자 2인 사업담당자 1인

2) 주요 질문

가. 앞서 제시한 평가틀을 중심으로 5개 평가영역, 15개 질문으로 구성함

나. 심층면접 질문범주는 아래와 같음

- 사업의 추진
- 사회적 영향
- 활동주체의 성장
- 인권운동의 활성화
- 지원사업의 의미

<표 Ⅲ-3> 심층면접 질문 범주와 내용

질문범주		질문내용
1. 추진	사업이 합당하게 추진되었는가?	1-1. 사업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추진됐는가? 1-2. 사업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게 추진됐는가? 1-3. 변수(코로나19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영향	사업을 통한 변화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2-1. 설정한 사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는가? 2-2. 사업이 다루는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2-3. 인권의 가치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성장	사업을 통한 활동주체의 성장이 있었는가?	3-1. 사업을 추진한 활동가는 역량과 성장이 있었는가? 3-2. 사업참여자(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3-3. 사업 추진 단체는 역량과 자원이 강화됐는가?
4. 활성화	인권운동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4-1. 인권운동 의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가? 4-2. 인권운동 방식에 발전이 있었는가? 4-3. 관련 네트워크(연대)가 강화·확장됐는가?
5. 지원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가?	5-1. 지원사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5-2. 지원대상에게 요긴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3. 지원방식이 단체들의 자율성을 북돋우고 있는가?

2.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조사결과

1) 사업의 추진

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절차

- 대체적으로 계획한 사업 목표 및 일정에 따라 진행함
- 사업 목적을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 활동가를 보강하는 등의 노력과 방안을 강구함

“계획대로 대체로 진행이 되고 있다. … 대면 접촉이 있는 행사들이 몰려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지장이 없다.”
 “사무국장이 결합하면서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상황이다.”

-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초기부터 종료시점까지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단체활동 및 목표한 사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등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틀 안에서 다양한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함. 일례로 대면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하거나 활동가들의 학습의 기회로 삼아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며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도 함

“코로나가 아니면 신나게 할 수 있었는데 할려고 했다가 못하고 못하고 하니깐, 그게 조금 힘드네요.”
 “상황이 처음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 현장성이 갖는 장점이 있잖아요. … 사소한 것에서부터 고민이 되는데 그거에 어려움이 있죠.”
 “우선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 … 원활하게 하지 못했어요. 하려고 하면 보류하고 하면서 갔었죠.”
 “온라인으로 저희만 …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토론회가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변수다. 일단 지켜보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이 힘들 경우 온라인 토론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간담회를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변경을 했었고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좀 기일에 약간 촉박한 방식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은 잘 됐어요.”
 “많이 지체됐어요. …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를 조금 더 늘리고 인권운동과 관련된 세미나를 더 늘렸던 거죠.”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자료집 만들면 좋고 또 보고할 때도 그런 최종 자료만 가져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지지층을 좀 마련을 하는데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 잘 몰랐던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 추진을 한 거죠.”

나. 인권 가치와의 부합

- 단체 활동의 가치와 목적이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점에서 인권 가치의 지향과 확산을 위해 노력함,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써 본 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활동에서도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적 관점에서 실행하고자 노력함
- 단체 활동은 인권의 가치 확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성찰함

- 또한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환기하고 접근하고자 노력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의 인권 보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인권운동 현장의 열악한 상황으로 제약이 존재하는 아쉬움이 있음
- 단체 정체성을 인권존중으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인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인권 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중요할 수 있음

“이런 문제가 인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람들의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인권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조직 내 민주적 의사소통이 문화로 녹아 있어서 사업진행 방식 역시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추진되고 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 동료의 문제를 가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나의 의견까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거, 이런 기회를 갖는 거로써의 의미가 있는거예요.”

“인권을 위해서 가치 있는 활동들을 저희 방식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런 비빌 언덕이 있다는 존재감을 주지 않았을까.”

“내 정체성을 인권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수많은 인권의 ... 없다면 그걸 만들어야겠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구요.”

“문제제기 자체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타깃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오히려 하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다 완벽하게 아직은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조적으로 하곤 합니다. 인권운동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자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 비일비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도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가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소수자 운동이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소수자성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거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겠구나라고 시작해서 세미나들을 꼭 해왔던거죠.”

다. 위기(코로나19)에 대한 대응

-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돌발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 활동 및 계획을 변경하거나 유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함. 그러나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활동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단체활동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대안적 방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하였던 활동을 중심으로 단체 및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차선책을 강구함
- 컨퍼런스, 상담 등 대면이 필수적인 프로그램의 경우 원안 추진이 불가능하기도 했는데 일부 계획을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게 되면서 인권의 확산 및 만남에 대해 성찰하고 다양한 활동방식에 대한 희망적인 가능성을 모

색하기도 함

- 일례로, 대면에서 비대면 행사로의 전환은 워크숍을 추가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거리, 장소 등 여러 제약으로 대면참여가 어려웠던 참가자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
- 하지만 사업추진 방법, 일정 등의 변경에 의해 준비와 진행, 참여에서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제약과 난관이 발생하기도 함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해서 … 왜냐면 이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자꾸 끊기고 그럴 때가 … 소통이 아쉬워서.”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모여서 하는 활동들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임을 갖는 게 좀 어렵죠.”
“불확실성의 상황이라는 조건에서 기존의 연대나 핫라인 이런걸 통해서 시시각각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 긴급한 상황은 안 놓치죠.”
“코로나로 인해 변경되면서 … 좀 더 안전한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비대면인데 온라인 강연같은 거는 준비를 철저히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죠.”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온라인 토론회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은 서면으로 전환할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활동에 있어서 희망적으로 봤거든요. 왜냐면 …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 나름의 상식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그 다음의 질문이에요.”
“코로나19 상황에 …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하였던 … 참여자의 수를 1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 체크하고 기록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안 보이니깐 간식비가 남아서 줌을 통한 워크숍을 1회 추가로 더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줌으로 왔을 때 거의 두 배 정도 오셨었고요. 지방에 … 오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온라인이 여러모로 편리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익숙했던 일들이면 … 대체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을까? 준비를 하려면 충분히 사전 자료도 … 준비할 때에는 이게 저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었죠.”

2) 사회적 영향

가. 활동목표

- 중요한 사회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이슈를 다루는 운동의 특성상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음. 그러나 해당 사안을 주요 운동 의제로 설정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의미가 있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루는 주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 이 주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 새로운 교육영역을 개척한 의미도 있다.”
“차별금지를 넘어서 …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단체들 안에서 일할 수 있을

까? ... 한국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 어떤 정책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비교되 나라는 부분에서 흥미로울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시작된 거 같아요.”
 “저희 활동이 교차성이 포인트잖아요. ... 본인들의 답답한 인권이슈를 가지고 와서 ‘못 도 와주니’라는 얘기를 꺼내 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얘기를 쉽게 하지 못했던 인권 적인 이야기, 하지 못했던 것들을 ...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활동목표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표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음

“하려고 했던 거는 다 했다. 변경이 되긴 했으나 변경된 건 했다.”
 “사업의 활동 목표였던 ... 큰 변경이나 수정 없이 충실히 달성하였다.”
 “준비한 것에 시간과 노동에 비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목표에 못 미치거나 부족한 결과는 아니라고 ... 결과물에 대해 관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시간을 목격하고 기억했다면 저희는 활동의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단체의 중심의제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안을 인권의 프레임으로 사회적 관심을 전환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이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의미가 있음
- 단체 내부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경험이 됨
- 협력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인권의 저변을 확장하고 소통한다는 측면에서도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많은 정보로부터 소외가 돼 있잖아요. 정보접근에 대한 ... 접할 수 없는 것을 접할 수 있게 됐고 ... 여러 만족이 있겠지만 이게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하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경험이 유대와 연대의 시작인 거 같은데, ... 같이 뭘 하는 게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 갖는 의미가 있어요. ...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사회적 가치를 담아서 같이 하는 행동, 이런걸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교차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 지금 시대에 중요한 운동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 교차성에 대한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 서로 쌍방이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런 활동들이 좋다고”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말 걸기가 필요하다.”

-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인권의 개념이 갖는 역동성을 인지하고 인권의제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립하는 역할을 함
 -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를 목도하며 인권운동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한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됨
 - 계획한 사업 및 활동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귀결되지는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우리의 기본적인 의제인데, ... 논의를 주창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인권의 접목은 인권 혹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는 솔직히 이걸 저희가 좀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으로도 기여한 반응 있다고 ...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식으로 다음 퀘스트가 계속 생기는 것 같네요.”

다. 인권의 가치 확산

- 인권운동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을 인권의제로 설정하여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향과 책무를 가짐. 또한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은 인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함
 - 일례로, 아카이브와 기록물의 관리는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축적을 통해 인권의제를 확산하고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활동임

“기록접근성, 자료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경험이 함께 나뉘지지 않는 거다. ... 그런 점에서 아카이빙이 의미가 있다.”
 “아카이브는 충분히 향후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의제를 확산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록물을 남기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선례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란 기록이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 질문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운동 공간 안에서도 잘 안 되는 ... 인권 의제로 거리감 있지만 만나왔던 단체들 말고 각자의 고민을 좀 더 얘기하는 자리를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 확산할 수 있을까.”
 “도래해 있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은 ...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하는 퀄리티가 괜찮은 미디어 제작도 필요하다.”
 “여기랑은 상관없는 인권활동인데도 다른 인권활동을 아울러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 타 인권의 활동에 가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성을 넘는 게 교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당사자가 얘기한 것과 같은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나 대신에 얘기해 줄 수 있는,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한 개인만 계속해서 ... 문제제기 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 개인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단체에서 권한을 가진 ... 감수성을 높여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활동주체의 성장

가. 활동가의 역량

- 재정적으로 열악한 인권단체의 현실에서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인식이 확장되고 시야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였고,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제고되는 등의 역량이 강화됨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기력한 사람이었는데, ... 과정을 어쨌든 잘 극복하고 지금은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저의 새로운 면을 ... 저 스스로 좀 긍정감을 느끼죠. 그래도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는구나.”

“저는 많이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활동 이전과 이후를 본다면 사회 안에서 ... 내 말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 지금은 그대로 괜찮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함께 이야기하면서 힘이 되고, 또 소중한 동료도 있고, ...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서로 분담하고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문제해결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구나하는, ... 누군가에게 이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면서 역량이 강화되었다.”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거였어요. 좀 더 운동 시야가 넓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다양해서 서로 다른 관점이 교차되고, 각자 해 왔던 작업이 만나고 접목되는 과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같이 가니까 힘이 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

“인권 관련된 지식이 한층 더 많이 성장을 한거죠. ... 더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인권을 고민하고 다양한 인권을 고민하고 교차적으로 고민하는 방법들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성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전달할 때도 잘 전달할 수 있고 입장을 대변할 때도 잘 대변할 수 있는거 ... 더 만족감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 전반적인 문화가 바뀔 수 있구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함께 하게 되면서 ... 태도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역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됐죠. ... 이 사업을 통해 전체 활동으로써 우리도 고민을 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성장하게 됐어요.”

- 사업수행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활동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숙고와 주체적 활동가로서 성장하고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저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 하면 될까? 근데 했더니 됐다든 것들을 ...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끝까지 마치고 … 초반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라든지 능력에 대한 믿음도 그런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일들까지 했으니 그 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약간 본인의 현생에서의 성과를 또 발휘를 하시기도 했어요.”
 “진행하면서 쉽지 않는 과정이었지만 큰 문제없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마무리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한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참여자의 변화

- 인권단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경험 자체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상당함
 - 코로나 19로 인해 적극적인 대면 참여의 장이 많이 제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의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만나 더 깊이 배우며,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등의 활동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성찰하고, 인권운동에 한 발 더 다가서며, 인권의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활동가로서의 자신을 새롭게 발굴하는 장이 됨

“같이 뭔가를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참여자의 욕구가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뭔가 할 수 있다는 …”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좀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 그래도 이제 꾸준히 활동하면 활동하는 거 봐주시는 분들, … 계시니까.”
 “저희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 만나는 지점을 마련했던 말이에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활동가로서의 약간 자기 안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 가지고 … 그런 거를 현장에서 알게 되니까.”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적 액션의 가능성, 사회적인 발언권을 얻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죠.”
 “쉽게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진전은 있다. 때로는 낙관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도 필요한 거죠. … ‘선생님 저도 활동을 하고 싶어요’라고.”
 “새로 만난 분들의 변화가 느껴진다. … 함께 하고 자신도 기여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관심 갖겠다고 한 분들이 꽤 생겨났으니 향후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직접 만나야 변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온라인으로)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많이들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민으로 시작 … 활동가라는 주체가 되기까지가 이것이 변화이지 않을까.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관련된 사람이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차별이 뭘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 다 말씀해주셨던게 또 모였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 자신들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 역량과 자원의 강화

- 재단의 재정지원과 단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결합되면서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과 자원이 강화되는 결과가 도출됨
 - 일부 단체들은 지원 사업을 새로운 시도의 계기로 삼아 독립적인 단체 건설 및 활동의 가능성을 타진함
 -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함
 - 사회와 소통하는 역량이 강화되었고, 연대를 통한 하나의 운동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함

“원래 프로젝트팀이었거든요. … 자문단이 되고, 비영리 단체가 되고, 입법제안하고, … 아 그런 일을 하구나 알아주고. 단체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활동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언어나 기획으로 만들 것인가 … 다른 부분에서 성장해서 다른 위치에 가 있겠구나는 생각은 있어요. … 분명히 다른 지점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기대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고, …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할 … 운동의 주체가 된 상황들이 고민해 봐야할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다 같이 찾아보고 있다. … 독립을 하는 게 보다 전문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 의미 있는 …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애. … 보고 느끼고 … 사람들이 유대가 자라서 공감, 사람으로서의 공감, … 목소리가 모여져야 자기 목소리가 형성되거든요.”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이야기 거리를 자꾸 던진다는 말을 거는 거잖아요. …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서 이런 구조, 내부의 에너지가 필요하긴 하죠.”
“사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 숨어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 단체가 활동을 함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비밀 언덕이 있다는 존재감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는 존재감을 시민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독립을 시도하자 하고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역량이 강화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 사회공헌 차원에서 요청을 해보자 하고 있어요.”
“지원사업을 계기로 … 플랫폼들을 연계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실제로 연대의 활동을 팔로우하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는 … 하나의 모델, 사례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통해서 연대라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4) 인권운동 활성화

가. 인권운동 의제

- 인권감수성 및 인식의 확장에 따라 인권의제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왔으며 현재도 발굴되고 있음. 이는 인권운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임. 따라서 인권운

동 지향은 현재의 쟁점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을 통해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에 확산하며 사람들의 감수성과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우선 다들 자기활동에 바쁘고, 자료정리는 늘 뒷순위에 밀리고, … 연관되는 일은 아니고. … 필요성은 있다고 합의는 하지만, 실제 일로 하는 것까진 이어지진 않더라.”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인권운동이 현재의 운동들에 더해 새로운 의제와 주체로 확장이 필요하다. … 인권운동 역시도 포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인권운동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한 주제들이 반영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기억과 기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운동에서 기억과 기록의 문제는 다급하고 당면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과거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기억과 기록이 현재의 문제라는 점, 기억과 기록을 통해서 운동의 의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인권운동 방식

○ 인권 당사자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운동의 방식을 확장함

-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는 전통적인 운동방식을 넘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시도하며 실험하는 계기로 전환됨. 일례로,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운동방식들을 개발하거나 모방하는 형태로 사업이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접근 및 참여방식의 변화는 지리적, 신체적 경계를 허물면서 다양하고 폭넓은 이들의 참여와 접근을 가능하게 함
- 또한 시대적 위기와 기후위기를 고려한 활동 방식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됨

“기록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정당하다는 것을 … 언어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나 세상에 설명되지 않은 일들을.”

“미디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 사회적 의제로 만들 홍보의 방안, 내부자 미디어로서의 내부 연대를 위한 공유 데이터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도 운동의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기록과 글로 남겨진 것도 중요한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와 담론이 풍성해 지도록 할 수 있다.”

“담론이 새로운 무언가를 규정하고 호명해 낼 때 … 사회 전체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서로 배움, … 우리가 시작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발화했을 때 공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담론이고, 그 담론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중요치 않다.”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의제를 고려하여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다. 네트워크의 강화

- 지원사업의 또 다른 긍정적 요소는 지원사업을 매개로 단체 및 활동가 간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임. 타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직·간접적인 교류와 만남은 격려와 지지, 배움과 성찰을 통한 주체간, 단체간 성장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함
-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인권의제를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 영역,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의 구축 및 이를 위한 시도는 인권운동의 저변을 확장하고, 인권운동을 활성화하며, 인권운동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다양성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사업에 연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죠.”

“이미 많은 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단체와 연대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연대하고 있어요.”

“단체들이 연대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간에 불명확하게 보이지만 각각의 인권의 가치하고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

“같이 액팅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후에는 본인들이 있는 단체들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게 있고 저희가 손을 내밀기 전에 뭔가 먼저 온 것도 없어서 소극적이었던 것도 있고.”

“뭔가를 같이하자는 게 있어서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제안했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완전히 모르지 않는 분들이라.”

“새로 형성된 관계, 직간접적으로 강화의 영향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행동하였다. 단체와의 유대 확장되는 것이다. ... 단체와 연계하여 함께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 그 다음 소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서로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 또 연대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이런 기대도 있고, 점점 많은 곳이랑 연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일종의 그 네트워크를 좀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 여기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이 운동 사회에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5) 지원사업의 사회적 부응

가. 지원사업의 사회적 의미

- 지원사업을 통해 인권운동의 저변이 확장되고, 인권의제가 대중화되었음. 또한 내부적으로는 활동가들이 성장하고, 인권운동의 토대가 구축되고,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음. 이러한 성장과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재단의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모색, 시도되었으면 함

- 재단의 지원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는 인권적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

“단체별 네트워크가 아니라 활동가들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고민하고, 고민 나누는 거. 공감대가 있다는 게 좋아요.”

“안정적이지 않은 방식의 구조고, … 꾸준히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의 후원은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거다.”

“다음재단의 지원방식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의미를 던지는, 선언적 의미가 아닌 현장의 사람들이 뿌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사회를 위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지키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 재단이 있고 하니까 지금은 어쨌든 단체가 안정되어 가는 데 도움이 됐어요.”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 어떻게 해서든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의 건강함을 지키는 것이며, 다음 사회적 과제들을 발견시키는 거잖아요.”

“자신의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지원이기 때문에, … 그런 기획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일반화할 순 없지만 가장 큰 기여는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를 지원주체가 보여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지원사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인권운동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계속 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활동가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은 자신의 활동에 열의와 열정을 가진 활동가들이 소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정신을 서포트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의 더 나은, 사회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고 많이 소진되고 다치고 아픈데, … (인권)활동가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느낌?”

“지원사업이 인권운동에 대해 지원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운동들 말고 인권운동에만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되게 의미가 있다”

나. 지원

- 인권운동의 속성상 많은 인권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긴장은 높은 데 반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은 이러한 인권단체의 현실에서 구상한 사업과 활동이 실현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초가 됨. 특히 존립의 기로에 선 일부 단체의 경우 지원사업이 또 다른 출발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되었음

“지원을 할 때도 작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 볼만 하겠구나라는 우리가 지원해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 다른 기금이랑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운영비 50% 가까이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 노하우나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기회, 앞으로 2~3년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 안되니까 지원이 필요했어요. … (다음의 지원이)

원동력이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게, ... 어느 정도는 덜 신경을 쓸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의 일에 포커싱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마 팔월쯤에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하죠.”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원 없이는 이뤄지기 힘들고 ... 올해 초에 기획을 했는데, 지원이 안돼서 다음에서 지원이 안 되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지원이 있어서 구체화 될 수 있었던 거죠.”

“지원을 통해 현재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식으로 돌려서 인건비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 ... 내부 인건비를 전면에 쓸 수 있는 편딩은 없다.”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주제를 논의하고 연구할 공간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 언젠가 다뤄야지 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시작할 수 있었다.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은 매우 요긴했다.”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도록 3천만 원으로 기반을 다져 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귀하게 잘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사업비가 없었다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 같다.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시금석이 된 것 같다. 아니었으면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인권운동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한테는 이 돈이 없으면 더 이상 할 수 없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희생정신으로 ... 재단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많아져야”

“작은 규모의 지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규모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인권운동이 규모가 필요한 사업은 거의 못하잖아요? ... 1년에 2개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걸로 하면 3년 정도 할 수 있는 걸 1년 동안 한 거죠. 또 인건비가 없는 거랑 차이인데 이 지원은 인건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사업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을 지원한다는 관점이 좋다.”

“단체의 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조율하고 수용해주셔서 예산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지원을 받는다면 그런 기획을 했으면 하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실험, 사람이 사회적 주체로서의 존엄을 확인 ...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사회변화의 추동력을 자꾸 암시를 던지고..”

“부정할 수 없는 건 이 재정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

- 하지만 재단의 지원과 인권단체의 현실 사이 인식의 공백지점으로 인해 의견의 차이가 표출되기도 하였음. 지원사업의 목표와 지원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고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와 이러한 생각을 서로 교환,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가능할 때,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유지는 물론 본 사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임

“요긴한 지원? ... 이 단체들을 케어해줄까? 이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1년 동안 성과를 내야 되고 자기들의 역량강화를 해야되고 이러는 건 맞지만, ... 기금을 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기금을 위한 활동, 자기들의 계발, 역량강화를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음세대재단은 모르겠는거예요.”

“다음세대재단은 인권운동에 대해서 ...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인권운동은 무엇일까.”

“지원금이 끝난 이후에 다음세대재단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재단이 인권운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 단체들의 활동을 자기네 활동으로 가져가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세대재단은 잘 모르겠다.”

“다음세대재단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들었다. 인권운동 지원한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느냐며 핀잔도 들었다고 했다 ... 다음세대재단이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니 이런 제안은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 즉각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올리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세대재단) 지원금의 규모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 처음에 받았던 가이드라인, 기금운영에 대한 ... 그런 부분들에 대해 파악들이 되었을 텐데 그런 고려가 안 된 가이드 라인이 나왔구나라고 보였던 거죠. ... 게다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코로나 상황까지 터져서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 ... 외적인 고민들이 뒤섞이면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서는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다. 자율성

- 단체활동의 자율성 확보는 사업을 수행하고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재단의 지원방식과 운영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하였음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도 훨씬 자율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넓고 많이 번거롭지 않고 담당자들과 조율할 수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게 예산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은 그런 부분에서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지원사업을 일 년에 5-6개 했었어요. ...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재단이라면 앞을 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재단에 고마운 것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 토론은 있으나 압력은 없다는 거 이것은 중요하죠. 신뢰 속에서 믿어준다는 것이 좋은 거고.”

“단체들의 자율성에 대해 개입 이런 거는 느끼지를 못했고, ... 단체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하게 저희도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단체들이 하는 역할과 다음세대재단과 같은 지원재단이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일 뿐 그 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다. ... (다음세대재단) 훌륭하다고 느끼고 있다.”

“본래 자율성을 중시하는 조직이지만,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 주었다. ... 지원을 받게 되면 지켜야 하는 책임의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종속관계로 느껴진 것은 없다.”

“(다음세대재단)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도록 지원해준 것 같아요. 뭔가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할까? 저희가 사업을 변경한다고 할 때 다른 곳은 말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는데 확실히 다음에는 약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냥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곳이구나 싶죠.”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권운동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실행에 무리하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역할을 수행해주셨습니다.”

6) 기타

-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이 제기된 바, 재단과 영세한 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체계적인 회계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근데 진짜 제가 아예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서 회계 처리하는 거. 강의도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 다음세대재단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회계구조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 단체의 상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 회계 시스템이 있으면 편리할 듯하다. 단체 활동가들은 회계라는 기본 업무를 사실 능하지 못하다. 사람을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 인권운동은 단기간이 아닌 긴 시간이 흐른 후에 활동의 가시적인 변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인권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관심의 토대 위에 연대와 협업이 가능한 지원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장기적인 10년도 걸릴 수 있는 사업의 첫 시작일 수 있는 것이고, … 나아가는 방향으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고 싶은거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5-10년 동안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저희 단체의 중요한 용어 하나가 지속가능성이거든요. 지속가능하고 싶어요.”
“이런 지원 사업이 파일럿으로 한번 실행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 지속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아울러 … 인권운동은 적어도 3년이나 5년의 사이클을 가봐야 제대로 된 효과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인권단체가 단순히 돈만 필요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인권단체의 개개의 정체성과 그 단체들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향후 인권운동 지원방향의 논의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지원 영역의 세분화를 통해 소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인권의제 및 활동의 활성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세대재단) 다양한 의제의 영역들 이렇게 여러 가지 포섭하고 싶어 하시고 한국사회 안에서 특히나 각자의 영역들을 다함께 지원해 주고 싶어하신 거 같아요. … 영역들을 세분화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활동의 영역들을 단체의 규모나 영역이나 등등을 고려한 선정이라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게 했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3. 지원사업 추진결과





1) 찾아가는 인권버스(지구인의 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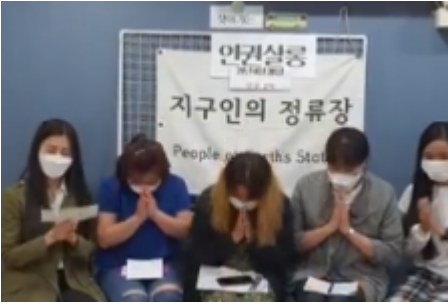
가.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권버스 - 찾아가는 인권사진관 - 찾아가는 인권살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권버스 - 노동인권교실 - 찾아가는 인권살롱

<표 III-4> 찾아가는 인권버스(지구인의 정류장) 세부사업 결과

세부 사업명	추진 계획	추진 결과
1	<p>찾아가는 인권버스</p> <p>○ 주요내용: 농업이주노동자가 많은 이천, 포천, 논산, 밀양 4곳을 노무사, 법률가, 활동가, 젠더교육가, 이주노동자가 탄 인권버스가 방문해 아래 내용을 지원함</p> <p>1) 법률지원: 노동관련 법률상담 젠더폭력 피해 대응 교육</p> <p>2) 의료지원: 긴급진료지원 여성건강권 교육</p> <p>3) 모국어 도서부스를 통한 주체적 독서장려</p> <p>4) 지역기반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p>	<p>○ 이천, 포천, 밀양, 논산을 방문해 다음 활동 진행</p> <p>1) 법률지원(노동관련 법률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31명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사례 9건 공유 - 노동법위반 발생 지역 노동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지원 <p>2) 건강권지원(긴급진료지원 및 의약키트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회, 참여 47명 <p>3) 모국어로 된 도서 소개 및 독서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30명 <p>4) 지역기반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105명 - 이천 7건, 밀양 11건, 논산 3건 멘토-멘티 형성 및 모니터링 진행 중 <p>5) 노동인권캠페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118명 <p>6) 여성젠더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회, 참여 20명 <p>7) 노동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40명

<p>활동 이미지</p>		
	<p>여성젠더교육 (2020.7.11. 이천)</p>	<p>노동인권캠페인 (2021. 3. 4 양산)</p>
<p>세부 사업명</p>	<p>노동인권교실</p>	
	<p>추진 계획</p>	<p>1) 인권도서관: 인권관련 모어도서 함께 읽기 및 독후활동(월 1회) 2) 노동안전교실: 산업재해예방교육(월 1회)</p>
<p>추진 결과</p>	<p>1) 인권도서관 -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 3시 월 2회 진행 중 - 한번은 통역가와 함께, 한번은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진행 - 현재 쉼터에 있는 캄보디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어로 된 책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이후 감상을 나누고, 2가지 논점을 잡아서 토론했음 -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각자 또는 삼삼오오 모여서 책을 읽고 함께 했던 독후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인 책읽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체적 독서에 대한 욕구 조사 총 4회 시행 - 총 16회, 참여 93명</p> <p>2) 노동안전교실 - 세 번째 토요일 오후 2시 월 1회 - 월급을 못 받거나 이주노동 중 얻은 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진행 - 산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신고요령 안내 - 총 8회, 참여 61명</p>	
<p>활동 이미지</p>		
	<p>인권도서관 (2021. 4. 10. 쉼터)</p>	<p>노동안전교실 (2020. 12. 20. 지구인의정류장)</p>

3	세부 사업명	찾아가는 인권살롱	
	추진 계획	1) 모국어 미디어 제작 및 SNS를 통한 미디어 공유 2) <찾아가는 인권버스> 다큐 제작 및 공유	
	추진 결과	1) 모국어 미디어 제작 및 SNS를 통한 공유 - 월 1회 이상 농업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온라인 노동인권 콘텐츠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공유 - 총 9회, 조회 10,494건 - 모어온라인방송 시청자와 미디어활동 간담회 3회 진행 2) 인권활동 기록영상 아카이빙 - 총 8회 3) <찾아가는 인권버스> 다큐 제작 및 공유 - 18분 다큐멘터리 제작 -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한 공유	
	활동 이미지		
		찾아가는 인권살롱 (2020. 9. 19. 센터)	모어 페이스북 방송 (2021. 4. 28. 지구인의 정류장)

나. 자체 사업성과 평가

- 고립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하고 노동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 함
- 이주노동에서도 소수자인 농업이주노동자들의 주요 의제 확인
- 농업 여성이주노동자의 발언권을 확장하는 기회 마련
- 노동자 밀집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연대 움직임을 포착함
- 상근활동가 증대(1명에서 2.5명)
- 인권재단 사람 및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을 통해 후속활동의 토대를 마련
- 한편 비대면화 되고 위축된 방역사회에서 애초 구상한 사업 추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음



2) 인권운동 아카이브(인권연구소 '창')

가.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에 대한 기록 정리 - 기록관리시스템 '인권아카이브' 등록 - 실물기록에 대한 보존 - 기록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 '인권아카이브' 기록관리 간담회 - 인권활동가 기록관리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에 대한 기록 정리 - 기록관리시스템 '인권아카이브' 등록 - 인권단체 기록관리 가이드 발행

<표 III-5> 인권운동 아카이브(인권연구소 '창') 세부사업 결과

1	세부 사업명	수집 기록에 대한 정리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필요시) 임의 수정 불가능한 배포용문서로 변환 - 기록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목 등 변경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2013년, 2015년-2018년 기록 2613개에 대한 정리 완료 - 2014년 기록 340개의 경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향후 재수집 및 정리 예정 	
2	세부 사업명	기록관리시스템 '인권아카이브' 등록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가 완료된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공개/비공개, 기록의 등록과 폐기 작업을 진행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018년(2014년 제외) 기록에 대한 정리 및 등록 절차 완료 - 총 사업 기간 동안 3587건 기록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783건에 대한 폐기를 진행 - 총 2110건 등록완료 	
활동 이미지		 <p>인권아카이브는 여러 인권단체의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만들고 인권연구소 '창'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p> <p>인권아카이브에는: - 인권 관련 기록 그 외 개인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 지금 받아보고 있는 인권 서적등에 대해 알고 관심과 역량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자료등에 대한 지원에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검색어를 입력하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하기"/></p>
		인권아카이브 홈페이지 1	인권아카이브 홈페이지 2

3	세부 사업명	인권단체 기록관리 가이드 발행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활동가(단체)는 기록 생산의 주체이면서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단체의 상황과 기록의 정리 보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함. 또한 소규모의 단체의 경우 활동가가 그만두면 활동의 기록이 함께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소규모 인권단체에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를 추진함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4월 2일 아카이브 가이드북 관련 zoom 회의 진행(국가기록원 연구원, 전 416아카이브 기록관리담당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문화연대 20주년 아카이브 담당 활동가 참석) - 5인 미만의 소규모 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한 협업 및 기록관리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중 	
	활동 이미지		
		인권단체 기록관리 워크숍(20.10.21)	인권단체 기록관리 워크숍(20.10.21)

나. 자체 사업성과 평가

- 코로나 19에 따른 활동 위축으로 기록 정리 및 등록 제외한 다른 성과 미진
- 간담회 및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기록관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록관리분야 네트워크가 확장됨(인권기록관리의 성과 학술지에 투고)
- 독립적 아카이브 단체를 신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3) 프로젝트 리셋: 올바른 디지털 생태계 구축(Project ReSET)

가.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24시 모니터링 팀 운영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집 발간 -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24시 모니터링 팀 운영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집 발간 -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표 III-6> 프로젝트 리셋: 올바른 디지털 생태계 구축(Project ReSET)

세부 사업명	추진 계획	추진 결과
1	<p>디지털 성범죄 24시 모니터링 팀</p> <p>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및 디지털 성범죄의 현 세대 파악을 위해 매일 각 플랫폼에 포진해있는 성착취 단체방 및 남초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채증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공하여 수사와 검거에 일조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및 피해대응을 위한 안내를 진행함</p> <p>2) 리셋에서 파악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리셋 자체 챗봇을 운영하며,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 혹은 연대자들의 역할을 안내함</p> <p>3) 피해자 지원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모니터링과 피해자 대응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p>	<p>1) 수사 공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4분기 정기회의 참석(2020. 12. 15.)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1분기 정기회의 참석(2020. 1. 29.)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리셋-경찰청 간담회 참석(2021. 3. 19.) <p>2) 증거 채증 및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그램: 약 70개가량의 성착취 단체방 채증 및 경찰신고 - 디스코드: 약 300개가량의 성착취 단체방 채증 및 경찰신고 - 트위터: 약 700개가량의 성착취 계정 채증 및 삭제요청 - 남초사이트: 약 100개가량의 성착취물 포함 게시물 채증 및 경찰신고, 삭제요청 및 기타 플랫폼에서 모니터링, 수사협조 진행 <p>3) 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자 D님과 재판방청 및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비점에 대한 워크숍 1회 진행(2021. 1. 9.)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능추적팀 박00님과 피해자 지원 및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워크숍 1회 진행(2021. 3. 23.) - 연대자 D님과 디지털 성범죄관련 현행법 및 입법제안 지점에 대한 워크숍 1회 진행(2021. 4. 11.) -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동가들의 만족도 매우 높음 <p>4) 성착취물 노출 활동가 대리외상 치료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5회, 상담 16명 - 대리외상 사후 점수가 치료상담 전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함

2	세부 사업명	단체 브랜드 마케팅 및 대중 대상 홍보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셋과 활동가들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 및 대중 대상 홍보를 진행함에 있어 뉴스레터와 영상제작, 구독자들을 확보한 여성주의 유튜버들과의 협업 추진 	
	추진 결과	<p>1) 캠페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 21일 ~ 12월 31일 '유튜브 신고주간' 개최 : 참여자 115명, 총 신고영상 수 1,049개. 총 36명에게 보상 제공 - 2020년 3월 8일 '리셋과 함께하는 여성의날' 개최, 라이브 & 방탈출 진행 : 참여자 180명(라이브 33명, 방탈출 147명). 총 18명에게 보상 제공 <p>2) 유튜브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독자 16만 5천명의 여성주의 유튜브 채널 [하말넘말] heavy talker과 영상협업 진행 - 100퍼센트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품을 읽어내는 '보-스들의 수다방'의 <걸캅스>편 제작 및 업로드(2021. 3. 28.) - 조회수 29만회 이상, 좋아요 4천여 개 <p>3) 광고 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독자 9만 7천명의 여성주의 유튜브 채널 [소그노]와 협업 진행 - '신뉴토피아 4화' 초입에 리셋 챗봇 홍보 광고영상 게시 - 조회 수 약 6만 7천회, 좋아요 7,200여개 <p>4)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1년 영상 제작 및 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번방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불꽃'과 함께 텔레그램성착취 사건 이후 1년간을 돌아보는 대담 형식의 영상 '여전히 싸우는 여자들' 제작 및 불꽃과 리셋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 불꽃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조회수 각 2,486회(1부), 1,462회(2부) - 리셋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조회수 각 260회(1부), 185회(2부) <p>5) 리셋레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 번째 여섯 번째 리셋레터 발송 - 최고 오픈율 69.9%, 평균 오픈율 52% - 2021년 5월 14일 현재 구독자 253명(2020. 11. 29. 기준 132명) <p>6) 리셋 공식 SNS 종합 시청 수(202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위터 합산 노출수(~2021.3.7.): 775,973 (2021.3.7. 이후 트위터 통계 에러), 게시글 47개 업로드 - 인스타그램 도달수: 512,686 / 게시글 81개 업로드 	
활동 이미지			
	유튜브 동영상 '보-스들의 수다방'	대담: 여전히 싸우는 여자들	

3	세부 사업명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료집 작성 및 연구 진행
	추진 계획	-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 및 피해자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차 자료집,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조사보고서,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국 입법제안서 제작 추진
	추진 결과	- 2020년 2월 이후 변화한 디지털 성범죄의 현 모습과 나아갈 방향을 담은 2차 자료집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실태 보고 자료집' 작성 - 지난 1~2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지원과정 전반의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면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응 조사보고서 제작 및 디지털 성범죄 인식조사 척도 제작의 초석 구성 -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종료 이후 수사과정의 일원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산하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과 신설 입법제안

나. 자체 사업성과 평가

- 지원팀 활동가 충원으로 모니터링 플랫폼 확장 및 규모 증가
- 활동가 상담의무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상담진행에 따른 대리외상 정도 감소
- 총 4회의 워크숍을 통한 활동가 역량 강화
- 높은 리셋 챗봇 홍보 영상 조회수와 챗봇 홈 활발하게 운영
- 효과적인 단체 홍보 마케팅을 통한 대중 호응 유도
- 일반인 인식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집 질 제고
- 정책연구 내용 학술지 게재 타진

4)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가.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담론 컨퍼런스 개최 - 여성주의 인권운동단체 및 퀴어인권운동 단체와의 연속 트랜스인권 간담회 개최 - 해외 트랜스젠더 포용 단체 인터뷰와 자료 번역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담론 컨퍼런스 자료집 제작 및 발간 - 여성주의 인권운동단체 및 퀴어인권운동 단체와의 연속 트랜스인권 간담회 개최 및 대담집 발간 - 해외 트랜스젠더 포용 단체 인터뷰와 자료 번역 및 배포

<표 III-7>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세부사업 결과

1	세부 사업명	컨퍼런스 자료집 제작 및 발간
	추진 계획	- 애초 <제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젠더담론 컨퍼런스를 위해 기획해둔 주제와 이슈를 엮어 편집한 자료집 책자 발행으로 사업 변경
	추진 결과	- 총 6편의 글이 수록된 자료집 발간 : 군대, 공중화장실, 대학,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상정해 공간별로 1~2편의 글을 수록 : 트랜스젠더 포용,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성폭력 사건의 사례, 젠더 이분법에 갇히지 않는 반성폭력 담론을 중심으로 한 사건일지, 활동경과, 담론적 논의, 개인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고민, 공동체의 상황 등을 기록 - 총 220부 제작 및 배포 : 본 사업 참여 단체 및 기관, 활동가 우선 배포 : 유관 활동 단체 요청시 배포 : PDF파일작성 및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 온라인 자료 접속건수 493건, 열람건수 136건 (21. 5월 현재)
2	세부 사업명	여성주의 인권운동단체 및 퀴어인권운동단체와의 연속 트랜스인권 간담회 개최 및 대담집 발간
	추진 계획	- 트랜스젠더 친화적 단체들과 “어떻게 우리 단체 내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들을 좀 더 포용하고 트랜스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온라인 간담회 개최 - 총 2회 개최 추진
	추진 결과	-2020. 11 1차 온라인 간담회 개최 :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 : 퀴어인권단체를 넘어 심리적 건강과 위기지원, 자살예방, 의료접근성을 다루는 단체들에 참여요청 : 생물학적 여성 전용 행사와 활동, 낙태죄 폐지와 맞물린 트랜스젠더 배제 주장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관련 법안 제정의 경험 등을 논의 - 2021. 5월 2차 간담회 개최 : 트랜스젠더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공간 구성, 상담자가 트랜스젠더 당사자일 때 트랜스젠더 포용 환경 제공 방법, 트랜스젠더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 제공,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다양성 등에 대한 논의 - 간담회 자료, 자료집으로 발간 : 본 사업 참여 단체 및 기관, 활동가 우선 배포 : 유관 활동 단체 요청시 배포 : PDF파일작성 및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 온라인 자료 접속건수 493건, 열람건수 136건 (21. 5월 현재)

3	세부 사업명	해외 트랜스젠더 포용 단체 인터뷰와 자료 번역 및 배포
	추진 계획	- 해외의 트랜스젠더 포용(affirming)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들이 제작한 트랜스젠더 포용 관련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 문헌 자료를 번역 및 배포 추진
	추진 결과	- 인터뷰 대상 : 캐나다의 포용 연합(Affirm United), 미국의 GLSEN과 스파르타(SPART*A), 네덜란드의 워크플레이스 프라이드(Workplace Pride), 국제적 활동을 하는 리이마진 젠더(Reimagine gender) 등과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걸쳐 차례대로 인터뷰를 진행 - 인터뷰 내용 : 단체별 특화된 인터뷰 문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온라인을 통해 조각보의 진행자 2명과 참여 단체의 활동가 1~2명이 함께 참여해 수행 - 주요 가이드라인 번역 : <열린 마음(Open Heart)>, GLSEN의 교육 자료 2편, 워크플레이스 프라이드의 가이드라인, 리이마진 젠더의 교육 자료 등 4편 - 3건의 인터뷰 및 4편의 가이드라인 번역해 종합한 자료집 발간, 배포 : 본 사업 참여 단체 및 기관, 활동가 우선 배포 : 유관 활동 단체 요청시 배포 : PDF파일작성 및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나. 자체 사업성과 평가

- 트랜스젠더 포용을 위한 토대로써의 자료 구축 및 자료집 발간, 배포
- 자료 배포 플랫폼 개편과 이를 통한 연계활동 기반 마련
- 여성주의적 활동 및 트랜스젠더 포용적 지원센터 연대체 수립을 위한 마중물이 됨

5) 평화는 모두의 권리-첨단기술과 평화권 어드보카시((사)피스모모)


가.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과 인권”, “무기와 인권”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 “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계 연구를 통한 담론 생성 및 보고서 작성 - “기술, 무기체계, 인권”에 대한 분야 간 토론회(학계, 기술, 사법, 인권, 평화분야 등) 진행 - “기술, 무기체계, 인권” 관련 국내 인권/평화 분야 활동가 공유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과 인권”, “무기와 인권”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 “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계 연구를 통한 담론 생성 및 보고서 작성 - “기술, 무기체계, 인권” 관련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 “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구와 관련한 자료들의 아카이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무기체계, 인권”과 관련 국제 토론회 참여 및 발제 - “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구와 관련한 자료들의 아카이브 운영, 사업 진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및 출판, 관련 미디어 자료 생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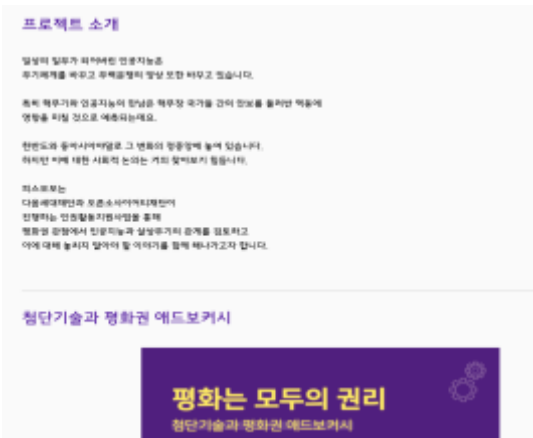
<표 III-8> 평화는 모두의 권리-첨단기술과 평화권 어드보카시((사)피스모모) 세부사업 결과

1	세부 사업명	“기술과 인권”, “무기와 인권”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기술, 무기, 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들을 한데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추진방법 : 연구조사팀 구성 및 운영 - 일정 : 2020. 5.~ 2020. 12.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과 인권/평화 관련 연구 조사 ② 무기와 인권/평화 관련 연구 조사 ③ 기술-무기-인권/평화 관련 연구 조사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문, 연구물 및 저서 자료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24편 - 해외 15편 2) 기사 및 인터넷 자료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35편 - 해외 27편
2	세부 사업명	“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계 연구를 통한 담론 생성 및 보고서 작성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무기-인권을 평화권 관점에서 분석 및 정리, 담론 생성 - 추진방법 : 연구조사팀 구성 및 운영, 관련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 일정 : 2020년 7월 ~ 2021년 3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과 인권/평화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 ② 무기와 인권/평화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 ③ 기술-무기-인권/평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FGI 인터뷰 진행 ④ 관련 인터뷰 및 자료 조사 내용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가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회 - 김중대, 연세대 객원교수 (대면 인터뷰) - 레이 어체슨(Ray Acheson), 킬러로봇금지캠페인 공동창립자,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의 비판적 의지에 도달하기 프로젝트 디렉터 (서면 인터뷰) - 메리 조이스(Mary Joyce), 피스보트 국제 코디네이터 (서면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 앤 라이트(Mary Ann Wright), 평화재향군인회 한반도 평화캠페인 코디네이터 (서면 인터뷰) -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서면 인터뷰) - 임예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통일외교안보전공 조교수 (서면 인터뷰) -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대면 인터뷰) <p>2) 평화는 모두의 권리: 첨단기술과 평화권 애드보커시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134쪽, 100부 제작 - 국회, 정부, 유관부처 및 사회단체 배포 예정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자료집 결과물></p> </div>
--	--	--

3	세부 사업명	“기술, 무기체계, 인권”과 관련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여론 형성 - 추진방법 :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토론 형식의 영상 콘텐츠 제작 - 일정 : 2021년 3월 ~ 4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과 인권/평화 관련 쟁점 소개 ② 무기 및 핵무기와 인권/평화 관련 쟁점 소개 ③ 평화권의 관점에서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 제시 ④ 시민사회의 역할 제안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와 같은 총 6편의 영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도 편견을 가질까? : 인공지능이 무기와 만나면? : 남한에도 핵이 있을까? : 핵무기와 AI가 만나면 세상은 더 안전해질까? : 인공지능의 무기화에 대한 인권 기준은? : 평화가 권리가 된다면? - 사회적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상의 목적은 관련 이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쟁점을 소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애초 온라인 토론 형식의 영상에서 모션 그래픽을 활용한 영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함

		 <p style="text-align: center;"><영상 결과물></p>
--	--	--

4	<p>세부 사업명</p>	<p>“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구와 관련한 자료들의 아카이브 운영</p>
	<p>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관련 국내외 자료 축적 및 생산되는 본 사업 관련 자료들 축적 및 공유 - 추진방법 :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 개설하여 축적 별도 도메인 통해 추가적인 접근 경로 형성 - 일정 : 2021. 4.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술과 인권/평화 관련 분야 연구자료 조사 및 축적 ② 무기와 인권/평화 관련 분야 연구자료 조사 및 축적 ③ 기술-무기-인권/평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FGI 인터뷰 기록 축적 ④ 기술-무기-인권/평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회 기록 축적 ⑤ 관련 인터뷰 및 자료 조사 내용 기반으로 보고서 업로드
<p>추진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소개, 연구 결과물, 인터뷰 발췌, 참여한 소개, 공론화 영상 등을 담은 페이지(www.righttopeace.net) 을 개설. 추후 관련 활동 진행 시 그 결과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업데이트해 운영 -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연구물에 포함되어 있는 바, 추후 논의에서 필요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운영하여 관련 이슈의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첨단기술과 평화권 페이지></p> </div>	

나. 자체 사업성과 평가

- 첨단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권리로서의 평화를 중심에 두고 검토함
- 첨단기술과 평화권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기초 자료 및 정보 플랫폼을 구축함

6) 자긍심 넘치는 우아한 농인성소수자 되기-한국 농인 성소수자 인권운동 첫걸음(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

가.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세미나1(정기모임) - 일본 농(Deaf)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초청 강연, 한국 농인LGBT 간담회 개최 - 퀴어문화축제 및 인권단체 행사부스 참가 -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제작한 퀴어영화 상영회 - 한국농인LGBT 인권단체 당사자 회원조직 - 한국수어 성소수자 어휘 개발 및 캠페인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세미나2(정기모임) - 한국수어/수어의 이해 및 단어형성의 13 가지 원칙 논의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소수자 관련 한국수어 어휘 바로잡기 - 현재 한국수어에 존재하지 않는 성소수자 관련 어휘 찾기 - 한국수어 어휘 개발 평가단 모집 및 구성 - 성소수자 관련 어휘 소개 책자 및 한국수어영상 제작 - 성소수자 관련 올바른 한국수어 표현 보급 - 캠페인 웹페이지 제작 - 한국수어 개발어휘 평가 워크숍(서울·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세미나1(정기모임) - 일본 농(Deaf)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초청 강연, 한국 농인LGBT 간담회 개최 - 한국수어 성소수자 어휘 개발 및 캠페인 -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세미나2(정기모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소수자 관련 한국수어 어휘 바로잡기 - 현재 한국수어에 존재하지 않는 성소수자 관련 어휘 찾기 - 한국수어 어휘 개발 평가단 모집 및 구성 - 성소수자 관련 어휘 소개 책자 및 한국수어영상 제작 - 성소수자 관련 올바른 한국수어 표현 보급 - 캠페인 웹페이지 제작

<표 III-9> 자긍심 넘치는 우아한 농인성소수자 되기-한국 농인 성소수자 인권운동 첫걸음
(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 세부사업 결과

1	세부 사업명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세미나 -1(단체 기틀 닦기) 성소수자 관련 용어, 성소수자 인권운동 세미나 -2(어휘 개발)
	추진 계획	1) 내부 세미나 2) 농인성소수자가 세미나1에서 배운 용어의 뜻을 수어로 표현하여 당사자의 언어로 만들기(언어 체화 과정) 3)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용어, 용어 풀이를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한국수어로 말하기 (언어 체계화 과정)
2	추진 결과	1) 내부 세미나 - 총 7회, 매월 1회 정례화 - 참여: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상임활동가(4인)+자원활동가(8인) - 주제 : No to Pinkwashing에 동참하며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기 : 소수자 언어 통역과 통역사 심리지원(난민이주민인권 호모인테르) : 성별정체성 개발 수어 어휘 점검(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 포괄적 차별금지법 알아보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소수자 정체성과 교차적 운동(소수자난민네트워크) : 진보적 장애인권운동의 역사와 흐름(장애여성공감) : 교차적 장애인권운동(장애여성공감) - 세미나를 통해 총 37개의 어휘 확정
	세부 사업명	한국수어 어휘 개발 평가단 모집 및 구성
2	추진 계획	- 개발된 어휘를 중심으로 2회 평가 예정 - 한국수어 전문가 및 농사회 내 영향력 있는 청년 단체 구성원들로 모집 - 개발한 어휘를 평가단과 함께 한국수어 사용자(농인 및 수어통역사, 수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어감 및 언어의 경제성 점검(개발 어휘가 개발목적에 부합한지 점수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지 제작) - 평가단과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수어 개발이 필요한 이유(성소수자 혐오)와 만들어진 수어를 논의하고 동의를 얻음으로 비공식적이지만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추진 결과	1) 각각 다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2회 진행. - 1회 자문회의는 농가족(Deaf Family)이면서 국제, 예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청년 활동가 3명으로 진행 - 2회 자문회의는 수어교육학 대학교수, 한국농아방송 수어 아나운서, 수어교육학 석사, 농인 직업교육 실무자, 서울농아인협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당사자, 한국수어교원, 수어교육학 석사이면서 현장 수어통역사 총 7명으로 진행 - 자문회의를 통해 탐, 바텀, 울, 아우팅-1, 아우팅-2 총 5개의 수어 어휘를 수정 - 현장에서 강연이나 교육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에게 수어 개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문위원을 통한 농사회 홍보

3	세부 사업명	성소수자 관련 어휘 소개 책자 및 한국수어영상 제작
	추진 계획	앞선 세미나와 조사, 개발 작업을 통해 정리한 어휘를 소개하는 책자와 영상을 제작
	추진 결과	1) 성소수자 관련 어휘 소개 책자 - 총 6개의 장으로 된 성소수자 관련 어휘 책자 <농인성소수자>(한국수어: 편견과 혐오를 걷어낸 존중과 긍정의 언어) 1000부 제작 - 컬러 책자로 제작해 전국의 농아인협회 및 수어통역센터(200곳 이상)와 인권단체 발송 예정 2) 한국수어영상 제작 - 책자로 제작한 내용을 한국수어로 촬영 - 한국수어로 된 수어책자는 www.DeafQueerKor.org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쇄된 책자 안 QR코드로도 접속이 가능함
4	세부 사업명	성소수자 관련 올바른 한국수어 표현 보급하기
	추진 계획	- SNS는 농사회에서 힘 있는 홍보 수단이 되는데 개발한 한국수어를 담은 영상을 SNS를 통해 20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는 농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제작한 책자를 전국시도 216개 농아인협회 및 수어통역센터 등에 배포하여 농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성소수자 관련 한국수어를 제시함
	추진 결과	1) 수어레터 제작 - 한국수어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단체의 설립목적과 당사자성, 활동 등을 홍보 - 289명(전국농아인협회 및 시도지회, 농 관련 기관, 구독자 등)에게 발송 (2021. 4. 30.)
5	세부 사업명	캠페인 웹페이지 제작
	추진 계획	- 보다 편리한 접근과 빠른 소식 전달을 위하여 웹페이지 제작 : 성소수자 관련 어휘 한국수어 표현 및 뜻풀이 영상 업로드 : 책자 pdf 파일 공개로 접근성 높이기(책자 소진시, 업로드 예정)
	추진 결과	- 한국농인LGBT 웹페이지 <www.DeafQueerKor.org> 제작 - 웹페이지에서 <농인성소수자X한국수어: 편견과 혐오를 걷어낸 존중과 긍정의 언어> 책자 열람 및 구입 문의 가능
6	세부 사업명	일본 농(Deaf)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초청 강연 및 한국 농인LGBT 간담회 개최
	추진 계획	- 일본의 Deaf LGBTQ Center의 대표인 야마모토 후유미를 초청해 일본의 농인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를 들어보고,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세계 동향을 배우면서 앞으로 한국의 인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성소수자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할 예정 - 일본 성소수자 대회에서 농인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세션 개최
	추진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농인성소수자를 가시화하는 영화 <즐겁다>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사가노 영화제에 출품 및 상영 2) 일본 성소수자의 의료, 복지, 교육을 생각하는 전국대회 세션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의 의료, 복지, 교육을 생각하는 전국대회 2021(in Japan)]에서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와 일본의 Deaf LGBTQ Center가 함께 서로의 활동, 농인과 성소수자라는 교차성 등에 대해 ZOOM으로 이야기를 나눔 - 한국과 일본의 연대 활동을 통해 연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농인 성소수자 네트워크를 구축 시도
7	세부 사업명	<p>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소수자 관련 한국수어 어휘 바로잡기</p> <p>현재 한국수어에 존재하지 않는 성소수자 관련 어휘 찾기</p>
	추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소수자 관련 한국수어 모으기(한국수어사전, 농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어떤 지점에서 혐오표현인지 규명하기 - 대안수어 제안하기(기초작업) 2) 현재 한국수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 찾아내기(세미나를 통해 접한 어휘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체성을 가진 당사자(농인트랜스젠더, 농인젠더퀴어, 등)와 만남을 통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대안 수어의 필요성 논의하기 - 대안수어 제안하기(기초작업) 3) '참여의견' 제시를 통해 소통 및 변화 추진
	추진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휘 모으기 + 연대활동으로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활동 확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표현 수어 46개 발굴 2) 한국수어통역이 배치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권단체 행사의 한국수어통역 참여의견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작성 및 발송 참여의견 제시 17곳 - 2020년 작성 및 발송 참여의견 제시 16곳

나. 자체 사업성과 평가



- 코로나 19로 대외 및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농인성소수자의 가시화에 제약 발생
- 세미나를 통한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외부 활동가들과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촉진됨
- 수어레터 제작 통해 청사회에 농인소수자 존재 및 권익을 가시화함
- 한편 재정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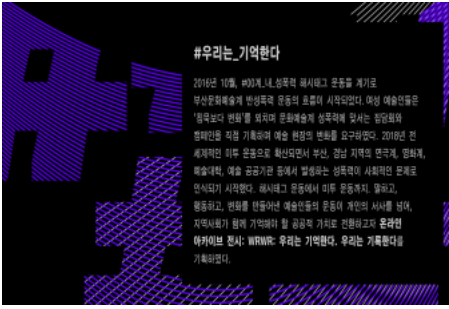

7)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아카이브사업(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가.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축 - 아카이브 사업(강좌) - 성과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프로그램 <세이프 존 만들기 link and link> -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기록 프로젝트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 WRWR -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운동 기록 도서 출간 프로젝트

<표 III-10>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아카이브사업(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세부사업 결과

1	세부 사업명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운동 기록 도서 출간 프로젝트 <그건 예술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서부터 2018년 미투 운동까지 부산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성폭력 운동 투쟁의 시간을 기록하고자 함 - 내가 예술활동을 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하는 일, 응시하는 일, 이야기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맞선 여성 예술인들의 투쟁기를 기획 - 단행본 발간을 위한 월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2021년 3월 텀블벅 프로젝트, 4월 배송을 목표로 함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사의 출판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 추가를 요청하였으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출판이 무산됨 - 자체 출판 계획 수립 후, 출판사 등록, ISBN 발급 - 2021년 3월 여성의 날에 맞춰 텀블벅 페이지 오픈(총 187명 후원) - 2021년 4월 단행본 <그건 예술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500부 발간 및 5월 발송 - 참고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식물성 콩기름을 이용하여 인쇄하여 동물의 권리 및 기후위기 시대에 연대하고자 함 	
활동 이미지	 <p>그건 예술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p> <p>3,892,000 ₩ 129%</p> <p>0</p> <p>187</p> <p>텀블벅 프로젝트</p>	 <p>그건 예술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p> <p>단행본 출판</p>	

2	세부 사업명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기록 프로젝트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 WRWR: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기록한다.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 운동 당사자들의 발화 기록과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 자료 아카이브를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구현하고, 주변 예술인들의 변화된 인식과 행동, 예술계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사유하도록 만듦 -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과정을 사진, 영상,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서 표현한 작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시함 - 2021년 4월 전시개최를 목표로 관련해 월별 계획을 세우고 추진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작가 섭외 및 작가들이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반성폭력연대의 활동사진, 캠페인 포스터 등의 3여 년간의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야별로 정리함 - 1회의 미팅과 3회의 피드백 과정 총 4회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 웹 구축 - 네 가지 섹션으로 전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션1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 섹션2 <문화예술계 성폭력 OUT!> : 섹션3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 연대기> : 섹션4 <변화를 위한 약속문> 관객참여 프로그램 - 온라인 토크라이브 행사 개최 및 중계(조회 251/ 2021. 4. 9.) - 관람 824명, 페이지뷰 1,720건(소감문 50명) - 각 섹션별 참가자 218명, 206명, 196명. 약속문에 30명 참여 	
활동 이미지	 <p>온라인전시회</p>	 <p>온라인 토크라이브 행사</p>	
3	세부 사업명	네트워크 프로그램 <세이프 존 만들기 link and link>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역사를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함. 이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지 않으며 성숙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만드는데 기여함 -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소통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함 - 2020년 11월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최 준비를 위한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함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부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기획에 착수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 <세이프 존 만들기 link and link>를 구상. <세이프 존 만들기 link and link>는 	

	<p>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부산문화예술계 반성 폭력운동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기 위해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위한 약속을 만드는 프로그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참여를 요청할 단체들을 목록화 해 6개 단체 섭외 -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2020. 11. 5.) <p>: 1부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봄 : 2부 미투운동 이후 우리의 현장에서 든 고민을 나누고 약속문 작성</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약속문 전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는 호기심 앞에 풍부한 상상을! 질문 앞에 존중을! 농담 앞에 권리를 세우는 시간/공간/관계를 만듭니다 2. 우리는 나이와 경력이 위계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의 경험을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3. 우리는 우리의 테이블에 배제와 폭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며 즐거운 대화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4. 우리는 문제상황 발생 시 구성원 모두가 상황 해결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합니다 5.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여성이라서 차별받고 피해받지 않는 안전한 문화예술계, 안전한 일자리, 안전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6. 우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적응하면서 얻어지는 사회적 권력에 대해서 예민해지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계 권력을 남발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예민해지겠습니다. 7. 우리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과 차별, 억압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찾아내서 평화와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div>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 이미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세이프존 네트워크 행사(20. 11. 5)</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세이프존 네트워크 행사(20. 11. 5)</p> </div> </div>

나. 자체 사업성과 평가

- 지역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을 여성 예술인의 시각과 목소리, 방식으로 해석하고 기록함
- 여성이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여성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의 장을 구축함

- 지역에서 성폭력에 맞서 싸워온 여성 예술인과 그들의 활동을 잇는 계기를 마련함
- 성폭력에 반대해 온 문화예술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가 공적 기억으로 재의미화 되도록 시도함
- 사업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도록 경계함

IV. 성과평가와 의미부여

1. 평가지표1 ‘추진’

1) 사업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추진됐는가?

가. 계획과 추진: 사업계획에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단체의 계획과 지원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였음

- 단체 설립 취지와 활동 목적에 부합한 사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함.
-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상황이 처음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현장성이 갖는 장점이 있잖아요”

☞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당사자들을 만날수가 없으니까, 많이 지체됐었고...”

☞ “...할려고 했다가 못하고 못하고 하니깐, 그게 조금 힘드네요.”

☞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게 많아서... 전반적으로는 좀 기일에 약간 촉박한 방식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은 잘 됐어요.”

☞ “...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약간 틀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 감염병 대유행은 사업진행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는 새로운 운동방법을 고민하게 한 계기가 됨.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활동을 전환하는 경험을 통해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음

나. 활동: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활동가를 충원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가를 발굴하기도 함

-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전담할 활동가의 합류가 가능해졌고, 이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지원사업은 외부상황과 무관하게 단체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재원이 되었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됨

- ☞ “우리가 더 많은 철학과 지식을 갖고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어가고”
- ☞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고 난 후에...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 ☞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긍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겠구나라고 시작해서...”
- ☞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지지층을 좀 마련을 하는데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면 어떨까... 플랫폼 확장하고...”

2) 사업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게 추진됐는가?

가. 단체들은 인권의 보호와 개개인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했음

-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영역의 목소리에 접근하고자 시도함

- ☞ “이런 주제들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마련하는 것, 이런 문제가 인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람들의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인권적 가치와 의미가...”
- ☞ “조직 내 민주적 의사소통이 문화로 녹아있어서 사업진행 방식 역시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추진되고 있다.”
- ☞ “인권을 위해서 가치 있는 활동들을 저희 방식으로 의지할 수 있는...”
- ☞ “정말 필요한 일이었는데 거의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목소리를 전하자”
- ☞ “... 인권운동 안에서도 배제와 소외가 발생합니다”
- ☞ “노력은 많이 했는데 오히려 하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완벽하게 아직은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내부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운동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자체적으로 인권의 프레임으로 해결하고자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정능력(自淨能力)을 가질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나. 본 사업은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진행의 전 과정을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함

- ☞ “(다음세대재단)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도...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를 지원주체가 보여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자체가 인권적이고 운동적인 접근이라 생각해서...”
- ☞ “...(다음세대재단) 권유했다가... 인권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런 계기를 통해 활동가들이... (다음세대재단)지원하겠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니 이런 제안은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올리는...”

- 재단의 경우 인권단체의 지원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인권단체의 현실을 사전인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사업 추진이 ‘인권’의 가치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가려 시도했는데, 이 과정은 인권적 관점에 기반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3) 변수(코로나19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가.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와 사회 시스템마저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따라 일상과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역시 적잖은 타격을 받음

- 사업의 수행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 특히 현장활동과 대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했고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고 활동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

☞ “...(코로나로)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모여서 하는 활동들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임을 갖는 게 좀 어렵죠.”

☞ “코로나로 취소되지 않고 진척되길...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을...”

☞ “코로나로 인해... 변경을 하려고 하거나 안전한 방식을.. 준비를 철저히 하거나 다른 방법을...”

☞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이 좀 불확실성이 높다고 해야되나요... 시시각각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활동에 있어서 희망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사람이 정확히 눈에 들어오니까...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의 경우 감염병 위기 상황은 큰 장벽이 되었음. 당위적인 차원에서 외부변수와 상관없이 활동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내실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음
- 참여의견 활동을 전개하였던 단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오히려 활동방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나. 코로나19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향한 잠재적 위협이었기 때문에 재단과 단체 양측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 상황을 대처하여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음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수정·변경된 계획은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어려움을 야기하였으나,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점차 적응하게 되었고 돌발상황을 헤쳐나간 경험은 인권운동에 소중한 자산이 됨

☞ “...(생각을 했다면)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준비를 하려면 충분히 사전 자료도 잘 만들고 잘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 “방법을 좀 찾았던 게... 참가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더라도... (내용들) 다 공유해가지고 전체 활동가분들께 다시 안내를...”
 ☞ “...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하였던... (전환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권의 관점을 다각도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며, 대안적인 활동의 방안도 고민할 수 있었음
- 사업의 추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의 경험은 단체활동 목적의 대전제 하에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함

4) 소결: 사업이 합당하게 추진되었는가?

가. 본 사업은 인권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여 인권단체 지원 방향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이 목적에 입각하여 사업은 계획에 의거 추진되었으며 인권적 가치를 준수하여 궁극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확장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음. 다만 감염병 대유행 위기상황으로 인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지만 큰 틀에서의 프로그램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

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가시화하기에 많은 제약이 형성되었지만, 온라인, 비대면 등 주어진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불가피한 돌발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가치를 준수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인권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2. 평가지표2 '영향'

1) 설정한 사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는가?

가. 활동과 목표: 단체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여 활동과 목표는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중요함

- 지원사업의 의미는 단체의 역량을 지속가능할 수 있는 자원이 되며, 사업 수행과 함께 단체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변경되면서 원래 계획의 차질이 발생하여 목표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음. 그러나 불가피한 외부 상황 역시 단체가 지향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중요함

☞ "... (다음세대재단 지원)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 같다.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시금석이 된 것 같다... 논의가 국내에서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것 같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내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다 된 건 아니지만 하고는 있고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기회를 갖게 뭔가를 만들어줄 것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는 다 대면이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죠."
☞ "... 더 고민을 하고 이런 감수성이 있는 단체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서로 토론하는 관계들을 만들어 가면... 인권의 가치하고 부합하는 방식으로..."
☞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루는 주체가 없다는 것... 의제에 관한 지형을 확인한 것이 큰 이득이다..."

- 달성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의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음

나. 인권의제를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설정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상당함

-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영향 및 의미의 차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경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 분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 중요한 소득이다... 시민들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교육활동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육영역을 개척한 의미도 있다”
- ☞ “... 인권이슈를 가지고 와서 ‘못 도와주니’라는 얘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얘기를 쉽게 하지 못했던 인권적인...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 ☞ “(활동목표) 큰 변경이나 수정 없이 충실히 달성하였다... 준비한 것에 시간과 노동에 비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목표에 못미치거나 부족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하려고 했던 거는 다 했다. 변경이 되긴 했으나 변경된 건 했다.”
- ☞ “이 시간들, 이 기억들을 사회와 나누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 누군가가 그 시간을 목격하고 기억했다면 저희는 활동의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2) 사업이 다루는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가.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인권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서 활동함

-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존재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은 협력과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됨

- ☞ “정보 소외 집단으로... 많은 정보로부터 소외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그러려면...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뭘 해도 시원하죠.”
- ☞ “저희와 관련된... 활동과 함께 하게 되면서 좀 더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게...”
- ☞ “... 그래도 뭔가 우리가 큰일을 했구나 싶은 거죠.”
- ☞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점들을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식으로 더 전파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 (아카이브)의제를 확산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 ☞ “뭔가 자기들만의 또 규칙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활동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것 같아요.”
- ☞ “결국 권리는 주체들의 경험이 쌓이면서... 외부에서 누가 대리해가지고... 그래서 권리는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험을 나누고 축적하고 연대하고 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나. 인권운동은 가시적인 효과보다 점진적인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의미를 갖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권운동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본 사업을 통해 인권운동의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음

-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였고, 인권의제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 “함께하는 경험이 유대와 연대의 시작인 거 같은데... 같이 뭘 하는 게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 갖는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사회적 가치를 담아서 같이 하는 행동...”
- ☞ “... 정체성 중에서 한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을 만났을 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 중 하나예요.”
- ☞ “... 통렬한 평가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인권운동을 하는거라는 생각도 들고”
- ☞ “영향력이 있어 졌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와 닿지 않지만... 서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니 그런 정보들이 오고가고...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 ☞ “평화와 인권을 결합 논의를 주창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평화와 인권의 접목은 인권 혹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라...”
- ☞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는 솔직히 이건 저희가 좀 했다고 생각하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식으로 다음 퀘스트가 계속 생기는 것 같네요.”
- ☞ “아직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으니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 ☞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 ☞ “... 왜 필요한지 환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인권의 가치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가. 권력관계에서 밀려난 사회적 의제를 인권의 문제로 설정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단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함
- 인권운동 본연의 역할을 통해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인권의 가치를 사회 저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

- ☞ “... 관련 가치 확산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미리 준비해야 언젠가... 인식을 효과적으로 확산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리라 본다...”
- ☞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는데 (사회적)장벽이 있었는데... 보편적인 공동체로서의... 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은... 인권 가치측면에서 확산될 수 있기를...”
- ☞ “기계적 평등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 ☞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인 권리투쟁이 멈춰버리는 것에서 고민이 됐었고... (인권운동) 단체들한테 확산할 수 있을까.”
- ☞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경험이 함께 나뉘지지 않는... 그런 점에서 아카이빙이 의미가 있다.”
- ☞ “상관없는 인권활동인데도 ... 기대감에 연락이... 있다는 것만으로 타 인권의 활동에 가치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 기록물의 관리와 축적은 가시적인 성과와 무관하게 긴 호흡으로 지속해야 할 인권운동의 특성상 인권의 가치확산을 위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함

나. 전반적으로 본 지원사업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그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인권 가치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활동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음

- 재단과 단체 간 상호문제의 해결하는 과정은 이른바 ‘갑을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다른 인권단체랑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지원을 통해 고립감을 좀 해소하고 좀 더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 “일반화할 순 없지만... 신뢰를 지원주체가 보여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자체가 인권적이고 운동적인 접근이라”

☞ “사회적 의미는 인권운동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 토론은 있으나 압력은 없다는... 신뢰 속에서 믿어준다는 것”

☞ “...(다음세대재단 지원) 기억을 공공적인 차원으로 확장하고 확산할 수... 잘 조율하고 수용해주셔서...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뜻깊게 참여하고 배우는...”

- 인권적 측면에서 지원사업이 갖는 의미는 인권단체 내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집중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반인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과 연대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4) 소결: 사업을 통한 변화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가. 지속가능성: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서도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은 사업성과의 측면을 넘어선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음. 인권운동의 성과는 단기적인 활동을 통해 가시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사회 변화를 견인해야함

- 이러한 활동의 지속은 사회구조가 친인권적인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나. 2020년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상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인권의제와 인권운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과거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2020년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존재하지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가 있으며 인권운동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사회가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평가지표3 ‘성장’

1) 사업 참여 활동가는 역량의 성장이 있었는가?

가. 인식과 태도: 지원사업 추진의 경험은 활동가 자신과 활동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마음가짐을 형성할 계기를 제공했음

-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활동가 자신과 활동, 활동을 통해 맺는 관계 등 각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변화의 방향은 꾸준함, 책임, 연대의식, 자신감, 관계성, 긍정적 사고, 자기효능감 향상 등으로 나타남

☞ “... 개인적으로 되게 무기력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꾸준히 하는 활동**이 생겼다 ... 저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 거 같아요”

☞ “... 이후에는 말하는 위치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 **관찰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

☞ “... 혼자 우는 게 아니라 ... **함께 이야기하면서 힘이 되고 ...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서로 분담하고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

☞ “문제해결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구나**하는 ...”

☞ “...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 옛날에 ... (동료를) 바라봤을 때 태도와 ... **함께 하고서 ...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구나 ... 그게 저의 성장입니다”

☞ “사실 번아웃이 좀 왔었어요 ... 근데 했더니 났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 “... 끝까지 마치고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더 일들을 하고 .. 하니까 초반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라든지 능력에 대한 믿음도 그런 것도 좀 생긴 것 같고요”

- 디지털 성범죄 감시활동을 진행한 ‘프로젝트 리셋’의 경우 사업 과정에 성착취물 노출 활동가 대리외상 치료·상담 활동을 포함해 사업추진 과정을 통한 간접적인 변화를 넘어, 활동가의 인식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했음
- 지원사업 추진과정의 성공적 경험만이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님. 사업과정에서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사업의 전체과정을 추진한 경험은 다른 “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이어짐
- 여러 활동가에 이런 지원사업의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그간 시민사회 공익활

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했지만, 인권 분야에서는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나. 지식과 역량: 단체 내부활동을 벗어나 활동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경험은 활동가의 지식과 역량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됨

-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대부분의 단체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단체 내부의 일상적인 활동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활동을 체계화하는 경험을 하게 됨
- 이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면서 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역량 성장의 기회가 마련됨
- 활동가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것들은 시야의 넓어짐, 지식의 확장, 고민하는 방법,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문제제기 하는 방법, 활동에 대한 성찰의 기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 고민들도 많이 듣고 ...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으면서 ... 좀 더 운동 시야가 넓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

☞ “인권 관련된 **지식**이 한층 더 많이 성장을 한거죠 ...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 “인권을 고민하고 다양한 ... **고민하는 방법들**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성장이 있지 않았나 ...”

☞ “...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 (활동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 ...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 **전달**하게 되면 ...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 활동을 함께 하면서 ... 전달할 때도 잘 전달할 수 있고 ...”

☞ “...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 전반적인 문화가 바뀔 수 있구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 “... 그전에는 ... 약간의 **우후죽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성장하게 됐어요”

- 지원사업을 계기로 분주한 일상에서는 마련하기 어려웠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음. 평화권을 주제로 활동한 ‘피스모모’의 경우 학습과 연구 자체가 중요한 활동이었음
- 아울러 ‘프로젝트 리셋’은 활동가 워크숍(4회)을, ‘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는 활동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고, ‘인권연구소 창’의 인권운동 아카이브 구축 과정은 참여한 활동가들의 기록관리 역량제고의 기회가 됨

2) 사업참여자(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가. 생각의 변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에서 인권운동 지원과 관련한 유의미한 생각의 변화들이 나타남

- 이번 지원사업 기간 내내 코로나19 전염병의 여파로 시민참여에 기반한 활동들은 많은 부분 진행되기 어려워 관련된 성과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지만, 참여 시민들의 유의미한 변화들도 포착됨
- 먼저 지원사업을 통한 생각의 변화는 참여자 성장의 출발점이 됨. 여기에는 다양한 참여자간 교류를 통한 새로운 관점, 활동참여의 의지, 인권운동에 대한 인지, 활동에 대한 호감, 인권감수성의 제고 등 다양한 변화들이 포함됨

☞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있다 ... 서로 다른 관점이 교차되고, 각자 해 왔던 작업이 만나고 **접목**되는 과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새로 만난 분들의 변화가 느껴진다 ... **함께 하고 자신도 기여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관심 갖겠다고** 한 분들이 꽤 생겨났으니 향후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

☞ “... 행사를 온라인으로 보는 시민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 그런 걸 남기더라구요 ...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 “... 오픈세미나를 했어요 ... 참여하신 분들 다 말씀해주셨던게 **또 모였으면 좋겠다 ...**”

☞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사실들을 **다시금 되새겼다** 눈 감지 않고, **예민해지겠다**’ ... 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인권운동과 관련된 여건의 미성숙으로 여러 단체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활동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하기도 했고, ‘한국농인 LGBT·서울인권영화제’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농인소수자의 존재와 권익에 관해 알릴 수 있었던 것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음

나. 행동의 변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단초들이 발견됨

- 사업성과에 있어서 ‘지구인의 정류장’은 찾아가는 인권버스 사업을 통해 농업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발언권과 연대를 확장되고,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는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아카이브사업을 통해 여성예술인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둠
-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동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들이 발견됨. 여기에는 시민들이 말하게 되고, 인권운동에 관심을 표명하고, 행동의 가능성과 의지를 형성하는 것 등이 포함됨

- ☞ “같이 뭔가를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참여자의 욕구가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 ☞ “... 그래도 이제 꾸준히 활동하면 활동하는 거 **봐주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니까”
- ☞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적 액션의 **가능성**, 사회적인 발언권을 얻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죠.”
- ☞ “쉽게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진전은 있다 ... ‘선생님 저도 **활동을 하고 싶어요**’라고 ...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자를 넘어 활동가로 성장하는 계기들도 포착됨. 한 활동가는 자신이 “시민으로 시작해서 ... 활동가라는 주체”가 된 경우라고 함. 이 밖에도 활동가로서 이해당사자(결혼이주민) 발굴하거나, 참여자가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사례들도 있었음

3) 사업 추진 단체는 역량과 자원이 강화됐는가?

가. 활동수단: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들이 마련한 활동수단들은 중요한 성과이며, 이와 관련된 인식변화와 과제도출은 성과의 비가시적인 측면임

○ 각 단체가 제시한 주요성과 예는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활동추진에 유용한 활동수단들을 마련했음. 여기에는 정보플랫폼 구축, 자료·도서발간, 활동가 충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유·무형 수단들이 포함됨

지구인의 정류장 찾아가는 인권버스 다큐 영상, 상근활동가 충원, 지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타 재단 지원기회 모색
인권연구소 창 기록관리시스템 인권아카이브 등록, 인권단체 기록관리 가이드 발행, 독립적 아카이브 단체 신설 기반 구축
프로젝트 리셋 지원팀 활동가 충원으로 모니터링 플랫폼 확장 및 규모 증가, 여전히 싸우는 여자들 영상물 제작
조각보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 해외자료 번역
피스모모 관련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아카이브 구축
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 관련 어휘소개 책자, 한국수어영상 제작, 캠페인 웹페이지 제작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그건 예술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출간

○ 지원사업을 통해 얻어진 가시적인 활동수단들도 있지만, 활동수단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변화나 과제도출, 단체의 구조적 기반 등 비가시적이지만 이후 유의미한 활동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단초들이 발견됐음

☞ “지원사업을 계기로 ...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 페이지도 만들게 되어서 **온라인 플랫폼들을 연계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실제로 연대의 활동을 팔로워하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임의단체로 등록을 하는 **구조**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다 같이 찾아보고 있다”

☞ “원래 프로젝트팀이었거든요 ... 갑자기 ... 자문단이 되고, **비영리 단체**가 되고 ... 단체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 “... 활동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만 특수하게 겪은 일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나 기획으로 만들 것인가가 고민 지점 ... 당사자들이 만든 걸 공유하고 싶기도 ...”

☞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이야기 꺼리**를 자꾸 던진다는 말을 거는 거잖아요 ... 토론도 필요하고 ... 접근가능한 아카이브 형성 ... 그런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서 이런 **구조**, 내부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 “**독립**을 시도하자 하고 있어요 ...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고 활동을 할까가 가장 큰 문제 ... 기록관리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요청**을 해보자 ...”

나. 관계자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원사업의 과정에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관계자원의 단초들이 발견됨

- 지원사업 과정에서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이후 활동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계자원과 관련된 계기를 맞이함. 여기에는 활동주체 확장에 관한 “고민”, 연대감의 확인, 관계를 향한 태도의 인식, “숨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상호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 등이 포함됨

☞ “... 특정 (당사자들만) 계속해서 운동의 주체가 된 상황들이 **고민**해 봐야할 것 같아요”

☞ “...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거 같애. 여러 사람이 유대와 **연대**, 그 다음에 ... 활동을 하는 거 필요하다”

☞ “커뮤니티 구성원이라는 **태도**를 우리가 익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피드백도 오고갈 수 있는 게 아닌가 ...”

☞ “사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 단체가 활동을 함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비밀 언덕이 있다는 존재감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주지 못했지만 심적으로 의존, **의지**할 수 있다라는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는 존재감을 시민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 아울러 관계자원의 마련이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로 나타난 단체들도 있음. 여기에는 지역기반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지구인의 정류장), 트랜스젠더 포용적 지원 관련 연대체의 단초 마련(조각보), 문화예술단체간 네트워크 구축(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등이 포함됨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관계자원 확보의 기본적 조건이 되는 만남과 모

임에 제약을 받는 “비대면 상황” 관계자원의 형성을 “굉장히 더 힘들게” 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음

4) 소결: 사업을 통한 활동주체의 성장이 있었는가?

가. 지원사업의 과정과 성과는 활동가, 시민, 단체 등 활동주체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됨

- 지원사업은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의미에서 볼 때 활동가와 참여자, 그리고 활동의 토대가 되는 단체의 성장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지원사업은 담당 활동가와 참여 시민, 그리고 조직적 기반인 단체의 성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활동가의 성장: 모든 사례에서 담당 활동가들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그 이전의 일상적 활동과정에서 느끼지 못하거나 놓치고 있던 ‘인식과 태도’, ‘지식과 역량’을 형성하는 계기를 맞이함
 - 시민의 성장: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줌. 시민들의 행동의 변화는 인권운동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함
 - 단체의 성장: 지원사업 과정에서 많은 단체들은 이후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수단’과 ‘관계자원’을 마련함. 이는 지원 이후 단체활동의 지속가능성과 협력에 기반한 집합적 영향력(Collective Impact)에 기여할 수 있음

나. 활동주체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여는 아직 많은 부분 가능성으로 존재해 향후 중요한 성과요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인권운동 및 활동의 여건이 아직 열악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주체 성장에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사업의 유의미한 성과들이 확인됨
- 하지만 활동주체 성장에 관한 성과들은 많은 부분 가능성이나 초기적 단초의 형태로 나타남. 이는 활동주체 성장을 구성하는 성과요소들이 비가시적인 경우도 많고, 구체적 성과는 이후 활용정도에 나타나는 특성에 기인함
- 이로 인해 활동주체의 성장은 중요한 성과요소로 잘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존재함. 하지만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자체도 투입(Input)의 측면에서 요긴하지만,

- 지원사업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장 역시 중요한 성과요소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지원사업의 근본적 취지에 비춰보면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원대상 단체·활동가가 지원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함
- 추후 활동주체의 성장에 대한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들과 성장을 복돋우는 장치들이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청됨

4. 평가지표4 ‘활성화’

1) 인권운동 의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가?

가. 의제 발굴: 지원사업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계기와 토대를 제공했음

- 의제의 발굴은 새로운 의제의 발굴, 기존의 존재하던 서로 다른 영역과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의제의 창조 및 권리담론의 출현 등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의제를 사회화하는 실험은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과 새로운 주체의 출현을 시사함

☞ “기억과 기록을 통해서 운동의 의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 “인권과 평화가 만나야 한다는 의미에 집중하면서…”

☞ “인권운동의 생태계가 우리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인권운동이 현재의 운동들에 더해 새로운 의제와 주체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구인의 정류장 농업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교육 및 젠더폭력 피해 대응 프로젝트
리셋 디지털 성범죄 채증 및 신고, 피해자 지원, 홍보
피스모모 “기술, 무기체계, 인권” 연계 연구,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등
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 한국수어 성소수자 어휘 개발 및 캠페인, 농인성소수자 당사자가 제작한 퀴어영화 상영회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 기록

- ‘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수어를 찾고 개발하며 성소수자 운동에서도 소외되어 온 농인 LGBT 권리의 문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인 LGBT의 사회적 출현을 알리기도 함
- 리셋은 자발적 민간 참여 확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성착취 단체방에 대한 채증 및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오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권운동을 필요성을 제기해오고 있음

- 한편 피스 모모의 활동은 기존에 존재했던 서로 다른 담론의 만남과 교차를 통해 새로운 인권 의제를 발굴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첨단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권리로서의 평화를 중심에 두고 검토한다는 점에서 평화와 인권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평화권 담론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인권운동의 본질이 정상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저항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제의 발굴과 실험은 인권운동의 본령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자 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인권의제에 대한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응답이라 할 수 있음

나. 관점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와 활동가들은 부차화 되거나 소외되어온 인권 의제들을 주요 사업으로 전진 배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다들 활동가들과 단체들은 필요성은 있다고 합의는 하지만, 실제 일로 하는 것까진 이어지진 않더라.”

☞ “전통적인 인권단체가 아닌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누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인권운동 단체가 힘든데 전통적인 인권단체들의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닌가 ...”

☞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새로워하시는, 예술인이 아니다 보니 모르는 부분도 있고...”

- 인권연구소 창의 아카이브 사업은 모든 운동에서 주변화되고 부차화되어왔던 기록과 아카이빙이 중요한 인권의제 및 활동영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한편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활동은 ‘부산’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문화예술계’라는 폐쇄적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본 지원사업을 통해 반성폭력연대 운동의 네트워크 확산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반성폭력운동의 지리적, 영역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확장을 보여줌
- 이를 통해 단체와 활동가들은 그들이 제기한 의제가 유의미한 활동이자 새로운 운동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활동의 추진이 가능해짐

2) 인권운동 방식에 발전에 있었는가?

가. 토대 구축: 지원사업은 단체별 의제 수행은 물론 인권운동의 담론 및 저변 확장을 위한 새로운 토대 구축에 기여함

- 각 단체는 단체가 수행해왔던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본 사업에 지원한

경우가 많았는데, 활동가들은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 주체의 배움과 성장, 의제의 사회화, 지속적인 활동 추진에 필요한 유용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이는 영상물 제작, 자료 발굴 및 번역, 자료집 및 단행본 발간, 아카이빙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전시회 개최 등의 형태로 외화되었음

지구인의 정류장 찾아가는 인권버스 다큐 영상 및 공유
인권연구소 창 기록관리시스템 인권아카이브 등록, 인권단체 기록관리 가이드 발행
프로젝트 리셋 여전히 싸우는 여자들 영상물 제작,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집 발간
조각보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 해외자료 번역
피소모모 관련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아카이브 구축
한국농인LGBT·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 관련 어휘소개 책자, 한국수어영상 제작, 캠페인 웹페이지 제작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그건 예술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온라인 전시회 및 단행본 출간

☞ “예전 자료들을 기억으로만 보던 것을 실제 일을 하면서 빨리 볼 수 있다. 또 연구소가 인권운동사할 때 자료를 **서포트**해준 것도 이 아카이빙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 “연구도 운동의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기록과 글로 남겨진 것도 중요한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와 담론이 **풍성**해 지도록 할 수 있다.”
 ☞ “사람의 권리에 더해 지구촌의 여러 존재들의 권리를 **동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언어들도 **필요**하다 ”

- 이러한 물적 토대들은 운동 내부적으로는 기록을 통해 역사와 현재를 보존하고, 언어를 개발하며, 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 및 활동 주체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보여짐. 또한 운동의 배후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후 의미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되었다 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성과들을 시민들 역시 접하고 공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운동의 물적 토대 구축은 운동의 저변을 확장하고 담론을 사회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가시적 성과라 할 수 있음

나. 방식의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도모, 시도함을 통해 새로운 인권운동의 방식들을 창출하거나 실험하는 계기를 마련해왔음

- 이는 인권운동의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의제를 대중화, 공론화 하고 참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를 낳음. 또한 새로운 배움과 운동의 출현에도 기여함

☞ “관련한 책이 있어서 위로를 받으면서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언어**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세상에 설명되지 않은 일들을.”

☞ “서로 **배움**, 즉 가르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시작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 “이전에 문제에 대응하며 투쟁을 하던 **방식**과 달리 또 다른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오염과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리셋은 여성의 날을 맞아 ‘라이브&방탈출’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기획을 시도하였고, 여성주의 유튜버들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대중화를 도모함.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는 코로나 19에 대응해 전시를 참여적 온라인 전시로 전환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 또한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는 지난 투쟁 기록을 기록화하는 단행본 출판에서도 환경오염과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실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방법”을 모색하였음

3) 관련 네트워크(연대)가 강화·확장됐는가?

가. 연대 확장: 지원사업을 통한 타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은 운동과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물론 상호 운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주체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임

-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과 이후 활동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과 기존 네트워크의 강화라는 두 축으로 시도되어왔음

☞ “그런 부분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게 있고 저희가 손을 내밀기 전에 뭔가 먼저 온 것도 없어서 **소극적이었던** 것도 있고.”

☞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서로의 경험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자 간담회를 잡았는데, 서로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연대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젠더 다양성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사업에 **연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죠.”

☞ “네트워크 구상이 명료하지는 않은데, **새로운 네트워크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 거절당하더라도 **그 다음 소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 **활동이 극성스럽다고** 느끼는 곳도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같이하자는 게 있어서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 일례로, 사업 초기까지만 해도 새로운 젠더 의제와 운동을 발굴해 온 자생적 신생단체들의 경우 기성 여성단체들과의 소통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해왔음. 이는 자생적 신생단체들과 기성 운동단체들 사이의 의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운동방식의 차이, 운동사회의 위계화 또는 권력화, 혹은 운동의 전문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완화, 해소돼왔음. 즉 사업을 통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이해가 높아지면서 상호 경계가 완화, 해소되는 변화를 경험함
- 한편 주목할 것은 다음세대재단이 지원사업의 과정에서 주최한 지원사업 선정 단체들 대상 보고회 및 만남의 자리 역시 서로 접점이 없거나 관계가 없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임. 특히 신생 단체 활동가들은 다음세대재단을 통해 인적 교류의 폭을 확장해왔으며 이를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시야와 저변이 확대되는 경험을 해왔다는 점에서 펀딩기관의 역할 또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나.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구축 및 강화는 의제와 운동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인적 교류를 넘어 이후 연대사업을 통한 유의미한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의미한 토대 구축에 기여함

- 지원사업 과정에서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로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고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연대의 실천 등을 고려하게 됨

☞ “새로 형성된 관계, 직간접적으로 강화의 영향은 행사로 인하여 OOOO의 변화된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행동**하였다. 단체와의 유대 확장되는 것이다.”

☞ “관리학 쪽하고도 좀 많이 더 만나게 됐어가지고 작년에 여기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이 운동 사회에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시기가 됐죠.”

☞ “OOOO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분이 **멘토**가 되어 단체와 연계하여 함께 고민하고 있다.”

☞ “이미 **많은 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단체와 연대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연대하고 있어요.”

- 이러한 변화는 ‘3. 성장 나. 관계자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단체들의 경우 지원사업의 주요한 성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동사회로 보았을 때는 새로운

인권의제의 제안과 인권운동의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인권운동의 사회적 파급력을 향상하고 인권운동의 생태계 다양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활동 주체들의 측면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 지지하며 위로받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주체들의 활동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네트워크는 단체 및 활동가 사이에서만 형성된 것은 아님. 코로나 19에 의해 사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들 및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적교류가 가능한 연결망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일례로, 제한된 형태지만 대면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인권버스(지구인의 정류장)’의 인권도서관 사업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서 꾸준히 자발적인 독후활동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4) 소결: 인권운동 의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가?

가.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추진은 인권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왔음

-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추진은 의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수행하며 실험하는 장이었으며, 이를 통해 인권운동의 의제 뿐 아니라 방식과 연대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기운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 지원사업은 다양한 각도에서 인권운동의 생태계를 보다 풍부하고 비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원단체들이 각 영역에서 고군분투해 온 과정과 성과는 결과적으로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이어짐
- 이러한 성과가 도출된 데에는 다음세대재단이 지정주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특정 의제를 지원하고 지원기관의 자격 요건을 낮춤에 따라 새로운 운동의 의제를 사회화하고 토대를 구축하는 실험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감안할 때 편당기관의 의제선정 및 지원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운동의 활성화와 정의 방향으로 상호작용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나.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여는 아직 많은 부분 가능성으로 존재해 향후 중요한 성과요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인권운동 단체 및 활동가들의 활동 조건이 열악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세대재단의 특화된 인권운동 및 활동가 지원은 각 단체의 사업 및 프로그램, 주체의 성장을 넘어 인권운동의 활성화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남긴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성과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많은 부분 가능성이나 초기적 단초의 형태로 보임. 이는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구성하는 성과 요소들이 비가시적인 경우도 많고, 운동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는데 적잖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특성에 기인함
- 또한 인권운동이 세분화 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영역별 인권운동의 변화와 성장, 활성화가 전체 인권운동의 성장 및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 경향 역시 존재함
-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 의제 및 활동 방식과 실현 의지를 가진 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인권운동의 생태계를 보다 풍요롭게 하며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5. 평가지표5 ‘지원’

1) 지원사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가. 운동 가능성: 지원사업은 단체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음

- 권력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인권운동의 속성상 많은 인권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긴장은 높은 데 반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은 인권단체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함. 나아가 재정적 열악함에 의해 존폐를 고민해야 했던 일부 인권단체에게는 존립을 가능하게 하고 활동의지를 다지게 한 원동력으로 작동함

☞ “매우 안정적이지 않은 방식의 구조고, 자신의 인건비를 자신이 만들어 와야 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꾸준히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의 후원은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거다.”

☞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으로 통해 이런 활동을 할 공간과 여력이 생겼다. 사업비가 없었다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 같다.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시금석이 된 것 같다.”

☞ “부정할 수 없는 건 이 재정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

☞ “정말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마 팔월쯤에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하죠.”

- ‘지구인의 정류장’의 ‘찾아가는 인권버스’는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유의미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삼아 인권재단 사람 및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함에 따라 후속활동의 토대를 마련함
- 인권연구소 창은 이번 지원을 통해 독립적 아카이브 단체를 신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자생적 신생인권단체인 리셋은 존폐의 위기에서 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됨

나. 사회 발전: 지원사업은 인권단체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해왔음

- 인권단체들은 다음세대재단을 통해 실현되는 자신들의 활동이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지키”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함을 지키”고,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한국사회를 위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지키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자신의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도 그런 기획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의 건강함**을 지키는 것이며, 다음 사회적 과제들을 발견시키는 거잖아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 이러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실천은 지원을 통한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건강함을 증진시키는 선 순환적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다음세대재단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2) 지원대상에게 요긴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사업 가능성: 다음세대재단의 재정지원정책은 단체 및 활동가들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돕고 나아가 활동 주체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효과까지 창출함

- 적잖은 지원금 규모, 지원금의 상한액 없는 인건비 사용, 신생단체 혹은 미등록 단체에 대한 포괄 지원은 다른 펀딩 기관의 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다음세대재단이 보여주는 차별화 전략이자 특별한 강점이라 할 수 있음

☞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사업 방식 중 칭찬하고 싶은 것이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사업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을 지원**한다는 관점이 좋다.”

☞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식으로 돌려서 인건비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렇게 조성되는 펀딩이 많으니 **회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업계의 관행처럼 나타나는데, 어쨌든 다음은 그런 **자기기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다. 내부 인건비를 전면에 쓸 수 있는 펀딩은 없다.”

☞ “작은 규모의 지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규모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인권운동이 규모가 필요한 사업은 거의 못하잖아요? …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6개 정도의 프로젝트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방에** 받은 거죠, 사실 1년에.”

☞ “지원을 할 때도 작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볼만하겠구나라는 우리가 지원해도 가능하겠구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

- 이러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미뤄오거나 실현 불가능하다 여겨왔던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펀딩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소해주었음
 - 나아가 인권단체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를 전용하는 나쁜 “관행”과 활동가들의 “자기기만” 없이 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활동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낳았음. 이를 통해 활동가들은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고, 이는 활동가들의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존감을 고취하는데 기여함
 - 일례로 몇몇 활동가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지탱되는 현실의 팍팍한 삶과 활동비는 고사하고 주머니를 털어 활동을 계속 해야하는 일상에서의 고단함 때문에 자괴감은 물론 활동을 중단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을 통해 활동은 물론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고 여겼으며, 이를 통해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음
 - 또한 일부 단체는 안정적 인건비의 확보로 상근활동가가 증대되어 단체 역량과 활동력이 강화되는 성과를 경험함
- 나. 지속가능성: 일회적이고 단발적 지원을 넘어 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다음세대재단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
- 인권운동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인식을 변화시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임. 이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인권운동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임

- ☞ “더 나아가서 앞으로 5-10년 동안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저희 단체의 중요한 용어 하나가 **지속가능성**이거든요. 지속가능하고 싶어요.”
- ☞ “이런 지원 사업이 파일럿으로 한번 실행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 인권운동은 적어도 3년이나 5년의 사이클을 가봐야 제대로 된 효과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 ☞ “다음재단의 지원방식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의미를 던지는, 선언적 의미가 아닌 현장의 사람들이 **뿌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 활동가들은 지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긴 호흡의 지원을 통한 활동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함.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하고 시대의 변화와 감수성의 신장에 따라 새로운 인권이제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의 지속성과 주체의 재생산은 인권단체의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또한 사회 변화는 물론 인식의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를 지원하는 물적토대의 구축 역시 장기적 계획 하에서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3) 지원방식이 단체들의 자율성을 복돋우고 있는가?

가. 자율성: 다음세대재단의 지원방식과 이를 수행하는 재단 실무자들의 태도는 지원단체들이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 재단의 개입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입장에서 무리없이 수용 가능한 “적절함” 선에서 이뤄졌으며,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사업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모함

-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도 훨씬 자율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넓고 많이 번거롭지 않고 담당자들과 조율할 수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게 예산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은 그런 부분에서 폭이 넓은 것 같아요.”
- ☞ “재단에 고마운 것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건 좋은거 같아요. 토론은 있으나 압력은 없다는 거 이것은 중요하죠. 신뢰 속에서 믿어준다는 것이 좋은 거고.”
- ☞ “돈 조금 주고 괴롭히는 데들에 비하면 진짜 재단은 돈을 상당한 규모로 주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도록 지원해준 것 같아요. 원가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할까?... 그냥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곳이거나 싶죠.”
- ☞ “프로젝트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실행에 무리하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지원단체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히 개입**해주셨습니다.”

☞ “단체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는 친구 같다는,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도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 특히 지원을 받게 된 대다수의 단체들이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대면 사업이 축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사업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관련해 재단은 지원단체들이 단체 내외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함
- 그리고 이를 조율하는 재단의 실무자들의 태도 역시 고압적이거나 위계적이기 보다는 단체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활동가들은 재단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었음

나. 관계향상: 지원방식에서의 자율성 보장은 활동가들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재단과 지원단체 사이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자율성의 제고는 재단에 대한 신뢰 향상 및 재정지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 및 활동가들의 책임감의 자율적으로 신장하는 효과를 낳았음. 이를 통해 활동가들은 재단과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인식, 수용하게 됨

☞ “단체들이 하는 역할과 다음세대재단과 같은 지원재단이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일 뿐 그 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접해온 다음세대재단의 태도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재단보다 훌륭하다고 느끼고 있다.”

☞ “여러 개를 비교 아닌 비교를 했을 때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믿게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 재단의 지원정책 및 지원방식,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지닌 태도는 최근 공공·민간영역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보았을 때 타 펀딩 기관이 갖춰야할 지원사업의 지향과 운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함
- 한편 이러한 지원방식 및 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상근자 보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오해가 발생하기도 함. 이는 영세한 인권단체에 대한 재단의 이해가 낮음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추후 지원에서는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선이해의 자리를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4) **소결: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가?**

가. 지원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과정, 실제 운영에서 단체의 요청은 물론 사회적 요청에도 부응한 것으로 보임

- 지원을 통해 단체의 활동과 사업의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은 단체 및 활동주체의 성장, 나아가 보다 인권적인 사회 만들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원사업의 규모와 운영,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실무자들의 태도는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은 코로나 19 방역에 대처하며 유연하게 사업을 조정해나감으로써 필요한 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
- 또한 자율성의 보장은 재단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의 책임감을 신장시키는 성과를 낳았음

나. 현 사업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토대를 구축해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원 영역을 보다 세분화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IV-1> 성과분석과 의미부여 결과 종합

평가영역	평가요소	성과분석과 의미부여
1. 추진	사업이 합당하게 추진되었는가?	=계획과 추진: 사업계획에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단체의 계획과 지원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였음 =활동: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활동가를 총원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가를 발굴하기도 함
	1-2. 사업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가?	=단체들은 인권의 보호와 개개인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했음 =본 사업은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진행의 전 과정을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함
	1-3. 변수(코로나19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코로나19 상황은 국가와 사회 시스템마저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따라 일상과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역시 적잖은 타격을 받음 =코로나19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향한 잠재적 위험이었기 때문에 재단과 단체 양측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 상황을 대처하여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음
	[총평] 사업은 계획에 의거 추진되었으며 인권적 가치를 준수하여 궁극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확장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음. 다만 감염병 대유행 위기상황으로 인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지만 큰 틀에서의 프로그램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	
2. 영향	2-1. 설정한 사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는가?	=활동과 목표: 단체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여 활동과 목표는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중요함 =인권의제를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설정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상당함
	2-2. 사업이 다루는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인권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서 활동함 =인권운동은 가시적인 효과보다 점진적인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의미를 갖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권운동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본 사업을 통해 인권운동의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음

		<p>2-3. 인권의 가치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p>	<p>=권력관계에서 밀려난 사회적 의제를 인권의 문제로 설정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단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함 =전반적으로 본 지원사업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그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인권 가치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활동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음</p>
		<p>[총평] 지속가능성: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서도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은 사업성과의 측면을 넘어선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음. 인권운동의 성과는 단기적인 활동을 통해 가시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사회 변화를 견인해야 함</p>	
<p>3. 성장</p>	<p>사업을 통한 활동주체의 성장이 있었는가?</p>	<p>3-1. 사업을 추진한 활동가는 역량 의 성장이 있었는가?</p>	<p>=인식과 태도: 지원사업 추진의 경험은 활동가 자신과 활동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마음가짐을 형성할 계기를 제공했음 =지식과 역량: 단체 내부활동을 벗어나 활동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경험은 활동가의 지식과 역량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됨</p>
		<p>3-2. 사업참여자(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p>	<p>=생각의 변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에서 인권운동 지원과 관련한 유의미한 생각의 변화들이 나타남 =행동의 변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단초들이 발견됨</p>
		<p>3-3. 사업 추진 단체는 역량과 자원이 강화됐는가?</p>	<p>=활동수단: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들이 마련한 활동수단들은 중요한 성과이며, 이와 관련된 인식변화와 과제도출은 성과의 비가시적인 측면임 =관계자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원사업의 과정에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관계자원의 단초들이 발견됨</p>
		<p>[총평] 지원사업의 과정과 성과는 활동가, 시민, 단체 등 활동주체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됨 활동주체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여는 아직 많은 부분 가능성으로 존재해 향후 중요한 성과요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p>	
<p>4. 활성화</p>	<p>인권운동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p>	<p>4-1. 인권운동 의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가?</p>	<p>=의제 발굴: 지원사업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계기와 토대를 제공했음 =관점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와 활동가들은 부차화 되거나 소외되어온 인권 의제들을 주요 사업으로 전진 배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p>
		<p>4-2. 인권운동 방식에 발전이 있었</p>	<p>=토대 구축: 지원사업은 단체별 의제 수행은 물론 인권운동의 담론 및 저변 확장을</p>

		는가?	위한 새로운 토대 구축에 기여함 =방식의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도모, 시도함을 통해 새로운 인권운동의 방식들을 창출하거나 실험하는 계기를 마련해왔음
		4-3. 관련 네트워크(연대)가 강화·확장됐는가?	=연대 확장: 지원사업을 통한 다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은 운동과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물론 상호 운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주체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임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구축 및 강화는 의제와 운동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인적 교류를 넘어 이후 연대사업을 통한 유의미한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의미한 토대 구축에 기여함
		[총평]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추진은 인권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왔음.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여는 아직 많은 부분 가능성으로 존재해 향후 중요한 성과요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5. 지원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가?	5-1. 지원사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운동 가능성: 지원사업은 단체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음 =사회 발전: 지원사업은 인권단체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해왔음
		5-2. 지원대상에게 요긴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업 가능성: 다음세대재단의 재정지원정책은 단체 및 활동가들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돕고 나아가 활동 주체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효과까지 창출함 =지속가능성: 일회적이고 단발적 지원을 넘어 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다음세대재단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
		5-3. 지원방식이 단체들의 자율성을 복돋우고 있는가?	=자율성: 다음세대재단의 지원방식과 이를 수행하는 재단 실무자들의 태도는 지원단체들이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관계향상: 지원방식에서의 자율성 보장은 활동가들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재단과 지원단체 사이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총평] 지원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과정, 실제 운영에서 단체의 요청은 물론 사회적 요청에도 부응한 것으로 보임. 현 사업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의 토대를 구축해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V. 제언

1. 지원사업의 향상을 위한 제언

○ 이번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은 한국의 사회운동 지원사업들 중에서 인권운동 및 활동에 특화된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특히 기존의 지원사업에서 선정되기 어려운 성격의 활동을 하거나 신생·미등록 단체나 모임이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업이었음

○ 게다가 이번 지원사업은 각 단체가 사업을 펼치는 방식이나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현장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현장친화적 지원이었음.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사업/예산 변경을 쉽고 신속하게 승인한 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점,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이러한 지원 방식은 인권운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도 되었지만,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함

○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형식과 (때로는)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대부분 유연하게 대처해서 큰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응답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사업 형식에 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 ①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해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② 이미 온라인을 이용한 만남·행사·활동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③ 역으로 때로는 온라인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더 편리한 방법임이 입증되었음. 대면이 줄어드는 시대의 사회운동과 인권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이번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하는 활동 분야와 전체 사회운동의 연계성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음. 앞으로는 각자가 관심을 갖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다른 인권문제와의 연계성 파악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미 활발하게 해온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대체로 신생) 단체의 경우는 그럴 여력이 없거나 통로를 알지 못하고 있음. 향후에는 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체들의 역량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방향의 사업 지원이 필요함. 이를 통해서 기존 사회운동이 축적해온 성과를 전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이번 지원사업이 끝나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세대재단에서 후속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함

2. 향후 평가들의 활용과 개선에 관한 제언

○ 유의미함과 함께 타당함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평가들은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지원사업을 매개로 창출된 다양한 의미들로 평가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지원사업의 근본적 취지에 부응하고자 했음. 아울러 사업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넘어 사업을 ‘돌리싼’ 무엇, 즉 맥락과 과정에 기반한 접근으로 지원사업의 성과와 영향을 풍부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유의미함을 지니고 있음

반면 맥락과 과정,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가들의 정교함과 평가결과의 타당함에 있어 어려움을 유발함.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평가들은 완성된 결과이기보다 이후 지속적 토론과 검증의 과정에 부칠 초안의 성격을 띠

이후 첫째로는 본 평가들이 인권운동과 활동현장의 인식과 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평가요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둘째로는 5대 영역 15개 평가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근거(Evidence)에 기반해 평가해석할 수 있는 자료발굴과 분석방법의 향상이 요청됨

○ 인권운동의 변화경향이 평가방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과정을 통해 최근 변화하는 인권운동의 경향이 포착됨.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권운동의 변화는 특수한 것이기 보다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 전반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기존의 인권운동은 비인권적인 정치·사회조건을 바로잡기 위한 주창(Advocacy)이나 비

인권적 상황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활동이 주축을 이룸. 이에 따라 직업적 전망을 가지고 훈련된 활동가와 공식성을 띤 단체들이 활동의 주된 기반이 됨

최근 들어 인권운동 주체와 관련해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이른바 ‘당사자’ 운동의 대두임. 이는 다시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 되는데, 첫째는 인권문제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나서는 것이고, 둘째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SNS나 유연자 발모임을 기반으로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경향임

이 두 가지 경향이 지닌 공통점은 직업적 전망을 지닌 훈련된 활동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비조직화된 방식으로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요약됨. 이로 인해 많은 단체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기존의 단체나 활동가들에 비해 대체로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을 통한 성과와 함께 사업과정에서 얻어지는 주체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 그럼에도 가시적 성과평가는 여전히 중시돼야

본 평가들이 맥락과 과정에 기반한 의미부여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평가들이 가시적 성과평가에 치중하는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지원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켜 가시적 성과요소의 비중을 상대화하고 있음

다만 자칫 가시적 성과평가가 지닌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게 될 우려가 제기됨. 맥락과 과정, 의미부여가 중요하지만, 해당 지원사업이 목표했던 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평가요소임. 지원사업을 통한 단체의 성장 등 피지원주체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후원자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내는가 하는 지원의 효능감이나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관점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기대를 가지고 지원한 사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추진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에 관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근거기반 평가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임. 문제는 가시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일은 어렵기도 하고 논란과 이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시적 성과에 관한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좀 더 정교한 평가자료와 방법이 요청됨

○ 평가들이 지원사업 초기에 미리 제시돼야

본 연구는 평가의 근본적 유익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대상이 되는 사업이 지닌 온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Evaluation)이라는 관점에 기반해 있음. 이와 함께 평가

가 지닌 또 다른 근본적 유익은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을 통해 피지원주체와 사업이 개선되는 것임

향후 본 평가들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지원사업 공고에서부터 평가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피지원주체들이 평가들에서 제시된 방향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보고서와 관련 자료도 평가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제출하게 될 것임

나아가 평가들이 단지 평가를 위한 도구를 넘어, 인권운동 및 활동의 새로운 의미와 지향을 제시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과 평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평가들이 지원사업의 향상에 주는 시사점: 사업유형의 분화

지원사업의 평가들 개발을 위한 고민과 논의는 역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함. 본 평가들은 사업의 성과, 사회적 영향, 주체의 성장 등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풍부한 의미부여에 강점을 지닌 반면, 개별 지원사업들이 지닌 특성이 잘 부각되지 않는 단점도 존재함

본 평가들이 지닌 장·단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원사업의 유형을 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본 사업의 규모(예산과 지원대상 단체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해 향후 논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은 유형화가 가능할 것임

첫째, 현행과 같은 자유의제와 형식에 기반한 지원방식은 여전히 주된 유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통해 다양한 인권운동과 활동이 발굴되고 풍부한 평가와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임

둘째, 후원자들이 기대하는 지원의 사회적 효능감 증대를 위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정의제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임. 예를 들면, 지정의제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의 인권, 기후위기와 인권, 민주화 운동과 인권(미얀마 사례)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음. 굵직한 지정의제 사업의 성과는 다른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둔 여타 다른 유형의 사업들과 상승효과(Synergy)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 해당 시기 한국사회의 주된 이슈가 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 중심의 기획사업을 설정할 수 있음. 이는 자유공모 방식보다는 지원사업 주관기관이 주요 인권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기획하

고 지원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임

넷째, 맥락과 과정을 중시하는 본 평가틀 개발과정에서 재조명된 지원사업을 통한 현장 주체들의 성장을 부수적인 성과로 두기보다, 성장 자체를 중요한 성과로 하는 성장지원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본 평가틀이 지닌 다양한 요소들을 특화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예산규모나 지원방식도 맞춤형으로 최적화해 나가면 지원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길주희. 2015. 『고난의 세월 '인권운동' 빛을 발하다: (사)한국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시민사회운동 25년사(1989~2014)』. 265-277.
- 김성례. 1991.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 체험」. 『한국여성학』 7. 7-40.
- 김태웅. 2019. 「인권 사상의 역사적 기반과 전개」. 『사회와역사』 124. 7-49.
- 류은숙. 2019. 인권운동사개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4: 인권의 사상과 제도」. 11-42.
- 미류. 2017. 「광장을 이어갈 인권운동의 도전」.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15-34.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3』. 돌베개.
- 박진. 2017. 촛불대선이였다: 촛불항쟁의 기록과 조기대선의 지나온 길.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7-12.
- 배경내. 2020. 「인권교육: 문제를 재정의하는 사회적 역량」. 장은주 외. 『우리는 시민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한국민주시민교육론』. 피어나.
- 서준식. 1998.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문.>
- 오창익. 2004. 「인권: 한국인권운동 15년사」. 한국시민사회연감편찬위원회. 『한국 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 시민의 신문. 431-452.
- 이나미. 2017. 『한국시민사회: 국가형성기(1945~1960)』. 학민사.
- 이정은. 2013. 「한국 인권운동의 토대 형성」. 『역사비평』 2013(여름). 61-91.
- 인권재단사람. 2019.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 정근식. 2019. 「서장: 한국의 인권 100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1: 인권운동사』. 11-40.
- 정정훈. 2020. 「한국 2세대 인권운동의 형성과 전개: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철민. 2014. 「YMCA, 흥사단, YWCA의 활동을 통해 본 시민운동 행위양식의 형성과 변화의 궤적(1981-2010)」.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철민·김연수. 2020.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성과 연구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 조효제. 2018.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 1(1). 37-71.
- 조희연·김동춘·김정훈. 2010.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울아카데미.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한국인권재단. 2015.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 Boesen, Jakob. K. & Martin, Tomas.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An inspirational guide for civil society*.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DIHR)(<https://www.humanrights.dk/sites/humanrights.dk/files/media/migrated/applying-a-rights-based-approach-2007-an-inspirational-guide-for-civil-society.pdf>).
- Cho Hyo-Je. 2010. *Two Concepts of Human Rights in Contemporary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39(2). 301-327.
- Davies, Rick & Dart, Jess. 2005. 'Most Significant Change'(MSC) Technique: A Guide to Its Use (<https://europa.eu/capacity4dev/file/28239/download?token=IWZXyl9RThe>).
- OECD DAC. 1991.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https://www.oecd.org/dac/evaluation/2755284.pdf>).
- Tilly, Charles. 1986. *The Contentious French*. Harvard University Press.